

左표류 · 從北인맥 척결 급하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아직 적화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당시)의 좌파 2기 정권 출범 다음 해인 2004년 9월9일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지도급 인사들 1,600여명이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자”는 부제를 붙여서 서명하여 발표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선언문’의 한 구절이다. 이 시국선언문 서명에는 5명의 전 국무총리, 7명의 전 국회의장, 4명의 전직 정당대표, 127명의 전직 국회의원, 49명의 전직 장관 및 42명의 4성 장군을 포함한 545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동참했다. 선언문에서 이들 서명자들은 “나라가 운동권 출신 386세대를 비롯한 친북·좌경·반미 세력의 손아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1998년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7년간 계속되고 있는 좌파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는 ‘좌표류(左漂流)’와 이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국가정체성 및 국민안보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7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판도에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동이 있었다. 2007년 12월의 17대 대통령선거와 2008년 4월의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하여 가히 지각변동이라고 할 만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17대 대선에서 보수·우익 세력의 지지를 얻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이 나라 직선제 대통령선거 사상 최대의 표차인 530만 표라는 엄청난 차이로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고 17대 국회에서 원내 제2당으로 위축되었던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했다. 이로써 좌파 정권의 10년 천하가 막을 내리고 나라는 다시 보수·우익 정권의 수중으로 회수되었다. 그러나 2008년 2월에 출범한 이명박 정권이 임기 1년반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엉뚱하다. 위험한 ‘좌표류’ 현상이 멈추어지지는커녕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좌표류’가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 충격적인 사건이다. ‘왕재산’은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지하당 공작의 한 사례다. 검찰 수사에 의하면, ‘왕재산’ 사건 범인들은 1994년에 사망한 김일성이

죽기 한 해 전에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첩견 교시’에 따라 남한의 민노당과 민노총은 물론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숙주(宿主)로 이용하면서 정계, 학계, 언론계, 재야에 지하당 조직을 구축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과 그의 아들로 3대 째 세습 후계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김정연에게까지 ‘대를 이은 충성’을 서약하면서 암약해 온 사실이

특별기고



이 동 복

- 전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 15대 국회의원
- 현 북한 민주화포럼 상임대표

‘왕재산’은 北 지하당공작의 전형 선거정국 이념대결 승부가 관전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침투하여 암약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주범의 한 명은 심지어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의장(임채정) 정부비서관이라는 합법적 신분을 획득하여 활동했으며 주범 2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민주화운동보상심의 위원회에 의하여 ‘민주화 운동’ 가담자로 인정을 받아 각기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회의 ‘좌표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왕재산’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정에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운동권 출신의 해군 장교가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현대사를 강의하는가 하면 학창 시절 한총련 회원이었던 여군 장교가 입관 후에도 당비를 납입하면서 민노당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어 군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역시 민노당 당원으로 당비를 계속 납입하고 있는 현직 검사들의 존재가 적발되는가 하면 학창 시절 운동권 출신 현직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 및 안보 사범들에게 ‘온정적(?)’ 판결을 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노동계

학교의 교단을 점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평가기구를 장악하고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침투하고 있는 ‘전교조’ 세력은 대한민국을 꺾어버리면서 오히려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현대사를 왜곡, 전도(顛倒)시키고 있는 국사 교과서 체제를 결사적으로 고수하면서 한미동맹 및 전쟁과 평화에 관한 왜곡된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가치관 형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오도하고 있다.

만시지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3년 반을 경과한 시점에서, 이 같은 ‘좌표류’ 현상에 대한 대한민국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계기로 정부가 ‘종북 좌익 세력’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8월12일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및 ‘검찰 내부의 적’과 함께 ‘종북 좌익 세력’을 상대로 하는 ‘3대 전쟁’ 수행을 선포했다. 정부는 이어서 8월26일 지난 3년 동안 열지 않았던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공안 대책협의회(의장·임정혁 대검 공안부장)를 소집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일체의 공안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다짐하고 나섰다.

‘종북 좌익 세력’에 대하여 전개하는 공안당국의 ‘전쟁’은 이제 ‘왕재산’ 사

건에 이어 제주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과 한진중공업 분규 등을 둘러싸고 가열될 기세다. 경찰은 27일 서울에서 한진중공업 분규와 관련하여 범 좌익 세력이 조직한 ‘희망버스’라는 이름의 불법시위에 대해 이 역시 3년 만에 처음으로 물대포를 쏘는 것을 포함한 강경 진압작전을 선 보였다. 경찰은 앞으로는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 보다는 ‘사법처리’를 우선시하는 진압 위주의 강경한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사회의 ‘좌표류’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보수 진영의 특단의 대책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고영주)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해체’ 추진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 단체는 8월26일 공

동으로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 접수시켰다. 이는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 ④항의 규정을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당헌 등이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충족시키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일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노동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퇴진을 몰아 온 서울에서의 8·24 주민투표 결과와 그 와중에서 불거진 선거부정 스캔들이 강요하고 있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낙마위기는 이로 인하여 실시되는 10·26 지방선거 보궐선거의 성격을 좌우 두 정치이념 세력 간의 결전장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내년에 실시될 양대 선거도 보다 선명한 좌우 대결의 양상으로 치러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서 관건은 정부와 여당이 과연 앞으로 1년여의 선거정국을 통하여 공안 당국이 포고한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될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정부·여당 안에 아직도 널리 잠복하여 포진해 있는 좌파 정권 때의 ‘종북’ 인맥들을 무력화시키고 공안 당국이 모처럼 선포한 ‘종북 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앞으로 관전의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 같다. [K]

청소년 도덕성실종 度 넘었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특별기고



박호종

• 서울대 교수/윤리교육과

붕괴'는 교실붕괴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권위의 붕괴가 '악순환'을 그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권위가 붕괴되니까 인성교육이 붕괴되고 또한 인성교육이 실종되니까 권위의 붕괴는 더욱 더 심해지는 것이다.

물론 권위붕괴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적이다. 인간 존중과 평등 및 인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호흡한 학생들이 '권리' 개념을 자신들에게 편한 아전인수(我田弓水)식으로 받아들여 선생님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징계와 벌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또한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보다는 자녀의 말만 신뢰하는 나머지 학교와 교사의 권위 존중 보다는 자기 자신의 독

학교, 교권이 무너진 학교, '왕따' 교실 등은 학생들을 이끄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나나 선생님이나 다같이 평등한 인간인데, 내가 왜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하는 식의 반문이야말로 권위붕괴의 대표적 신드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올바른 권위를 세워야 할 더 절박한 이유도 있다. 학교가 무너져 내리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도덕의 엄숙함도, 인격도야의 필요성도 깨달을 수 없고, 예의를 차리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중요성도 배우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붕괴한다. 공동체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이 편의적

학생人權보다 人性교육이 중요 '권위'에 대한 바른인식 가르쳐야

선과 아집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교사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교사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나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문제다.

권위란 무엇인가. 권위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학문적 담론이나 현실세계에서는 '권위(authority)'보다는 '권력(power)'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문제보다는 "누가 권력을 잡았는가"하는 점을 궁금해 하고 있다. '권력'의 행방에 초점을 맞추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은 자주 할지언정, '권위'가 화두가 되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은 거의 사어(死語)처럼 되었다.

그러나 '권위'는 '권력'과는 상이한 현상이며 독립적인 담론의 영역이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어떤 사람이 상(賞)을 받았을 때 우리는 상의 '권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다. 권위는 영어로 '오소리티(authority)'인데, 어원적으로 말하면, 저자(author)와 같은 어원을 갖는 라틴어의 '아욱토르(auctor)'에서 비롯된 '아욱토리타스(auctoritas)'로서 고대 로마인들은 '원천', '기원'의 뜻으로 사용했다. 이것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결정과 판단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좋은 품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길러지려면 이런 의미의 '권위'가 바로 서야한다. 욕설과 폭력이 만연한 학교, 잡자는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아 성숙한 인격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피교육자'의 존재라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은 서구의 고전적 전통이기도 하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육을 '파이에이아(paideia)'라고 하였는데, 어원적으로는 paidos+agein의 합성어로서 '아이를 인도한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은 교육을 'educatio'라고 불렀으며, 오늘날 영어 'education'의 어원이 되었다. 이것은 'e+ducare'의 합성어로서 '학생의 선천적 자질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길러준다'는 뜻이다.

이처럼 교육의 의미에 맞게 인도(引導)의 개념을 받아들일 때는 인도자의 '이끌', 즉 '권위'를 따라야한다. 지시와 조언을 하는 교사의 권위에 승복한다고 할 때 단순히 노예에게 요구되는 '맹종'이나 '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를 건너갈 때 아이들이 보호자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상황과 유사하다. 어린이 혼자 길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는가. 보호자의 손을 잡고 건널 때 인도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

한 자신의 직관적 판단보다 믿음직한 선생님의 올바른 조언과 지시를 따르며 자기반성과 판단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은 "빛나가려는 아이들을 학교에 서라도 잡아 쥐야하지 않느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교사가 지시라도 할라치면 막말도 서슴지 않는 사춘기의 아이들을 마구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하는 문제제기도 일선학교와 교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벌이든 대체벌이든, 어떤 방식으로 벌을 주느냐하는 문제는 자기반성이나 책임의식 배양이라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조망해 보았을 때 부차적인 문제일 뿐 핵심의제는 아니다.

체벌금지논란을 보면서 교육감들이 교육자보다 인권단체의 대표처럼 혹은 국가인권위원장처럼 행동해서야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학생인권이라는 특수어젠다 보다는 교육전반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하는 모습, 혹은 체벌문제보다는 인성교육문제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마땅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올바른 권위를 배워야한다. 권위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 학생은 '길들이지 못한 망아지'를 방불케 할 만큼 '버릇없는 사람'과 같다. 버릇없는 사람은 자기절제와 인내심없이 자기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이다. 이러한 무절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자기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불가능하고 '좋은 질서를 가진 공동체(well-ordered community)'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올바른 권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올바른 권위를 배우

3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품성에 빨간 불이 들어 온지는 한참 됐다.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욕설은 자연스러운 소통형태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즐거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량한 학생들이나 욕을 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우등생조차 거리낌 없이 욕설을 내뿜는다. 여성 환경미화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연세대 패륜남', 어머니뺨 되는 환경미화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경희대 패륜녀', 임신부를 폭행한 '지하철 발길질녀' 등 젊은이들의 무례한 언행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도 잠깐, 이제는 일상적 사건이 되어 버렸다.

또 친구들을 이른바 '빵돌이' '빵셔틀'로 부려 먹는 신종 학교 폭력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담배 심부름을 전담하는 '담배셔틀', 체육복을 빌려다 주는 '체육복셔틀', 시험답안을 알려주는 '시험셔틀'까지 있다. 범죄 집단도 아닌 어린 학생들이 나름의 서열에 따라 친구들을 종 부리듯 한다는 점이 충격적이지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학생들에게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분만이 중요할 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피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에 관심이 없다. 선(善)과 악(惡)에 대한 구분조차 의식이 없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이 '사람됨'을 잘못 가르치거나 아예 가르치지 못한 학교와 교사의 잘못만은 아니다.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고 대학입시를 위한 지식교육이 과열된 것도 문제다. 사실 스승이 '사람됨'을 열심히 가르쳐도 잘못된 제자는 나오게 마련이다. 일찍이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플라톤과 같은 훌륭한 제자도 있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알키비아데스처럼 잘못된 길을 간 제자가 있지 않았던가. 그런 의미에서 인성을 가르친다고 반드시 '좋은 사람', '좋은 시민'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가꾸는 농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벼나 작물을 가꾸는 논농사나 밭농사와는 달리 사람을 다루는 '인간농사'라는 점이다. 땅이 기름지고 좋아야 씨앗이 잘 자라는 법이다. 씨앗이 메마른 땅이나 바위에 떨어지면 말라죽을 수밖에 없듯이 내실있는 인성교육을 통해 인성의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미래는 어둡다.

학교 권위 바로 잡아야

인성교육이 실종된 학교의 현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위의 붕괴'다. 선생님의 말에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대드는 데서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권위의

福祉경쟁 경제파탄 자초 우려

大韓言論 2011 주제 ‘위기의 한국’ 진단



최희조

- 본보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 세종대 석좌교수

유로 존(Euro Zone)의 재정위기에 겹쳐 미국발 ‘소버린 리스크’ (Sovereign Risk)가 세계경제를 강타,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 충격파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크게 밀어닥쳐 대외변수에 취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넉넉한 외환보유고, 아직은 괜찮은 국가채무 등 보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우량하다. 그런데도 미국발 경제악재로 경기선행지수인 주가가 대폭락세를 보였다. 주가가 요동친 정도이고 아직 다른 경제지표의 악화 현상은 없다. 그러나 미국과 유로 존의 경제를 낙관하기보다는 상당기간 어렵게 보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에 빠지고 유로 존의 재정위기가 재연될 경우 세계경제와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 (Sovereign)가 채무상환 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소버린 리스크’ 라고 한다. 2011년 8월 미국이 소버린 리스크에 직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로 존의 일부 선진국들이 소버린 리스크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겨난 것도 같은 사례다. 미국의 경우는 누적 재정적자에 따른 과도한 국가부채와 이로인한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불러온 결과였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미국의 소버린 리스크는 곧 세계경제에 일파만파 충격과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 주었다.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이후만 3년만의 일이다. 3년 전 금융위기는 민간부문의 신용위기(Credit Risk)였다. 이번 금융위기는 연방정부의 신용위기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환 증액협상이 의회에서 타결된 것은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시한(8월2일)을 불과 이틀 앞둔 7월 31일. 그리고 부채상환 증액안의 법제화는 디폴트 시한 당일인 8월2일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쳐 마무리됐다. 연방정부 부채상환을 2조1천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2단계

에 걸쳐 재정지출을 2조4천억달러 삭감하는 내용이다. 6월 29일 현재 연방정부 부채(14조4600억달러)는 법정한도14조 2940억달러를 이미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상환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을 2개월 넘게 진행해 왔다.

의회는 부채 한도 증액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 부채한도 상환과 함께 추진되는 재정적자 감축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반영,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는 8월5일 오후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신용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한다고 발표했다. 1941년 S&P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시작한 이후 70년

대외변수에 약한 체질개선 시급 내수시장 확대-적재적소 투자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의회의 연방정부 재정지출 삭감규모 2조4천억달러가 S&P사의 4조달러 주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수준이란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재정적자 감축 규모가 물가상승 속도를 감안할 경우 충분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 전임 부시대통령은 집권 이후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아 정부 세수를 감소시켰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썼다. 정부는 국민 인기를 얻기 위해 노인들의 약 값 부담을 덜어주는 법 등을 제정하여 재정에 부담을 안겼다. 대기업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서민층 인기를 얻기위해 무리한 법안을 남발함으로써 재정부담이 늘어났다. 재정적자와 함께 막대한 무역적자도 국가부채의 증가요인이 됐다. 여기에다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비롯, 2001년 이래 계속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시작돼 2009년 종결된 이라크 전쟁 등에 쏟아부은 자금이 2조 달러를 넘었다.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돈을 벌어들인 금융까지 망가져 버렸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후 조 단위 신행무기 계획들을 대폭 축소, 폐지하는 국방비 감축에 나서기도 하고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어나는 부채규모에 비해 지출삭감규모는 미미해 연방정부 부채허용한도를 증액시켜 파산을 막는 교육책을 택하기에 이르렀

다. 1차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한 ‘양적 완화’에 이은 고단위 편법인 셈이다.

사상초유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는 세계 증시에 폭락 사태를 몰고 왔다. 각국 정부와 증권 분석가들 사이에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붕괴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S&P사가 향후 1년~1년6개월 안에 미국국가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경제전망을 어렵게 했다. 미국경제의 더블 딥이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다. 미국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서면 유로 존의 재정위기와 겹쳐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를 넘어 실물 경제 위기라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하

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미국발 경제악재는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또다시 절실한 과제로 떠 올렸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3년전 글로벌 금융위기때만 해도 외국인 투자주식이 매물홍수를 이루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이 폭등했는가 하면 경기후퇴로 경제성장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았다. 한국증시의 폭락사태는 2011년 여름 미국의 소버린 리스크에도 세계 최악을 면치 못했다. 위기 발원지인 미국을 비롯, 어느 나라 주가 보다도 우리 주가가 더 내려 갔다.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이 6월말 현재 31%로 주요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데다 외국인 보유 차익매물인 수출 주력주들이 폭락장세를 이끌었다. 외환보유고는 많다고 하지만 돌발 악재에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면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는 요인을 던져 주었다. 무역, 특히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도 대외변수에 취약한 요인이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질개선이란 두 큰 줄기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정부는 당초 5%대 목표의 올해 성장률을 물가상승억제를 위해 4.5%로 낮추었지만 4%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발 경제악재로 올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성장둔화와 물가상승, 청년실업, 양극화 현상이 큰 걸림돌이다. 경제문제만으로도 풀기 어려운 국면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무분별한 국민복지증진 경쟁이 가세해 경제난

극복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는 집권기간 중 국민적 인기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쓰려한다.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일랜드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로 존의 나라들과 미국이 그렇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위기를 드러낼 나라는 이들 말고도 더 많다. 세계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도 이런 시각에서 이들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누구나 재정건전화를 내세우지만 실행이 중요하다. 경제관료들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를 GDP대비 34%이니까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문제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정부로 넘어오면서 5년 간격으로 국가채무가 갑절씩 늘고 있다.

최근 들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등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복지문제에 있어 어느 당이나 다 비슷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어떤 복지도 한번 내디디면 멈추거나 되돌리기 어렵다. 복지지출 감축반대를 외치는 유럽 여러 나라의 시위와 폭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의

진보성향 집권 민주당 대표가 무리하게 공약했던 복지정책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표명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아 해외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타개책으로 내수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처방이 나온지 오래다. 개방폭이 과도한 자본시장 취약점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하다. 각 부문의 양극화 문제도 시정 개선해 나가야 할 우선 순위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이슈로 부각되는 경향이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돈을 잘 벌어서 재금을 쌓아놓는데 중소 내수기업은 경영난을 겪는다. 정규 및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현상을 비롯, 산업간, 지역간, 학력간 양극화 현상 등의 문제해소가 과제다. 금융을 비롯, 관광, 의료, 보건, 교통, 통신, 미디어, 숙박 등 서비스 산업진흥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제조업이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해야 한다.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비교우위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이것이 미국의 더블 딥 등 세계경제 침체에 대처하는 길이다.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을 집중육성해야 한다. 먹거리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국민건강을 위해 시장경제원리만 따지지 말아야 한다. 경제에 공짜는 없다. 앞에서 거론한 대책들이 모두 투자를 해야 가능한 일들이다. 국민이 낸 혈세든, 기업이 번 돈이든, 개인이 모은 돈이든, 돈을 모아 적재적소에 투자해야 한다. 재론하지만 정치권의 당리당락 차원의 복지지출경쟁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역행, 경제파탄을 자초할 뿐이다. [4]

2면에서 이어집니다.

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권위를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올바른 권위가 어떠한 지를 가르치는 일은 포괄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시절에 권위에 관한 올바른 의식과 체험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학교가 권위의 실존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권위에 승복하는 태도를 갖게 할 필요성은 도덕성 제고의 차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4]

재보선서 가려질 주민투표 功過

서울 시내 초·중생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 '전면이나, 단계적이나'를 관가름 짓는 주민투표는 서울시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결과 법정 투표율인 33.3%에 못미친 25.7%밖에 얻지 못해 부결, 무효가 되자 이틀만에 시장직을 사퇴했다.

사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 발의-투표-부결-시장직 사퇴까지 일련의 상황은 서울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의문점과 아쉬움 등을 남겼다. 과연 무상급식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만하고 또 시장직을 걸어야만할 사안이었는가 하는 점들이었을 것이다. 먼저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된 배경과 선거운동, 패배, 사퇴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70%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작년 12월 새해 예산심의에서 오시장이 1기때부터 추진해온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서해벚길, 양화교건설 등 대표적인 시정계획에 대한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해 제동을 걸었다. 이어 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무상급식의 길을 열었다. 이에 오시장은 "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회에 시정협의 중단과 회의출석의 중지를 통보하는 한편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올해 초 그는 무상급식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초부터 시민단체인 복지포폴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되어 서명받기에 나섰고 6월 16일 서울시민 81만명의 이름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서명-청구자의 진위를 가린 후 8월10일 주민투표를 발의했다.

주민투표에 관한 찬·반운동이 벌어지는 동안 서울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자 오시장은 두가지 정치적인 제의로 배수진을 쳤다.

8월 12일에는 차기(내년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투표율을 3일 앞둔 21일에는 승패에 서울시장직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3.3%를 넘으면 투표함을 개함, 개표도 하고 또 보다 많은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투표결과 투표율은 법정보다 7.6%나 적은 25.7%를 기록, 개함도 못한채 무효가 되고 말았다. 오시장이 패배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측면에서 규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오시장의 과잉대응, 시행착오, 오판(誤判)을 들 수 있다. 그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역점 시정계획

의 예산을 마구 삭감 축소시키고 시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무상급식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데 분명히 맞선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최대한 존중하고 설득과 타협은 물론 인내를 갖고 버텨야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언론이 저들의 횡포에 반발 비판케 했어야 했다.

다음 무상급식 문제는 작년말부터 야당이 3무 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로 정치적 이슈화해온 만큼 독자적 대응보다는 당연히 정부·여당·청와대가 정치적 차원에서 대응조절토록 맡겼어야 했다.

따라서 주민투표문제도 처음부터 당



이 성 춘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전 한국기자협회장

다. 한나라당은 처음 오시장이 사전협의 없이 주민투표를 제기했을 때 오히려 정국,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복지전쟁의 폭발성을 고려, 적어도 지난 봄 즈음에는 오시장을 불러 따지고 대책을 숙의하거나 투표추진을 막았어야 했다.

근 6개월 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가 투표한달반전부터 사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당을 다그치고 시당은 당협위원장들을 독려했으나 거의가 마지못한 발걸음들이었다. 더구나 진박계는 "왜 오세훈의 결정에 당의 운명, 의원들의 정치생명을 걸게 하려는가"고 반발하지 않았는가.

그 뿐인가,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벌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 與圈 책임커 총선-대선 가늠 최대 격전장 가능성

과 회부여부, 회부때 무상급식 계획등을 충분히 협의해 당내지 정부차원에서 큰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오시장은 위로는 대통령부터 안상수 홍준표 대표, 박근혜 정몽준 전 대표 등 중진들을 만나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했다.

또 투표용지에 교육청(야당)안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명기된 반면 오시장안은 "소득수준 50%이하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내세워 서민들에게 어필감을 덜것 것도 문제라 하겠다.

특히나 대통령 후보 경선 불출마와 시장직을 주민투표에 건것은 어색하기 만하다. 본인은 복지포폴리즘 무작정 공짜 급식을 막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급식 문제를 거기까지 연계시키는데 의아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아무튼 오시장이 어쩌면 정책적인 사안인 급식 문제를 정쟁의 이슈로 업그레이드하고 당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혼자 결심 결정, 선거운동, 투표로 매진한 것은 큰 실수임에 틀림없다. 서울시당 중앙당을 결정적인 지원군으로 삼았어야 했다.

다음 시민과 여론의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걸어야 한다는 필연성, 당연성을 시민 특히 서민층에게 설득하지 못했다. 더구나 작년말 이래 야당이 기치를 올린 무상복지시리즈에 여당도 가세, 경쟁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한 것이다.

끝으로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태도

어지고 있는 와중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터트림으로써 포폴리즘 반대운동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주민투표에서 패배하자 여권내에서는 뒤늦게 발을 구르면서 두군데로 인책론의 화살이 집중됐다. 하나는 당운영의 최고책임자인 홍준표대표, 다른 한쪽은 진박계 특히 박근혜 전 대표였다. 홍대표로서는 혹시나 패배책임론으로 두달도 안돼 대표직이 흔들리는 것이 무척이나 걱정이 됐을 것이다. 그러기에 10월 재보선에서 시장선거가 포함되지 않게 오시장의 사퇴를 10월로 늦출 것을 권유했고 25.7%투표율은 "진게 아니라 승리한 것"이라고 애써 강조했다.

주민투표 막바지에 속이탄 오시장과 당 지도부, 오시장은 박전대표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끝내 손길은 없었다. 박전대표는 "복지문제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다.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손을 저었다.

그로서는 내년 대선에서 맞춤 복지-큰복지를 펼쳐야하는 상황에서 애들 급식전쟁으로 혹시나 이미지 손상을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해도 비록 오시장이 한마디 사전협의없이 벌인 주민투표이긴 하나 승패는 곧 당의 운명, 지지율에서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촉진가능성까지 생각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책이 다르다 해도 큰 정치인답게 현연히 오시장을 지원해서 이긴 후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큰 이해를 주었을 것이다.

어쨌든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나친 자신감 오기 자만심으로 혼자 결심 결정 한 주민투표에서 패배했으나 그의 정치적 행태와 25.7% 득표에 대해서는 비판론과 긍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비판론으로는 초·중생들의 무상급식 문제를 정책차원에서 정쟁(政爭)거리로 제고시킨것, 업연히 조직인, 정당인임에도 오만과 과신 독단으로 개인플레이 끝에 패배해 가뜩이나 흔들리는 여권에게 상처를 준것, 게다가 시장직까지 즉각 사퇴해 10월 재보선을 큰 전쟁판으로 만든 점을 들었다.

반면 긍정적인 면으로는 무분별한 복지 포폴리즘 경쟁이 장차 국가적인 재정파탄을 자초하는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폴리즘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야당이 3무상+대학 등록금 반액이란 복지기치를 내걸고 여권이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 서울부터 못을 박아야 겠다며 분명히 주민투표에 몸을 던진 점이다.

이런점으로 그의 고집과 독단에 문제가 있지만 오시장이 장차 보수진영의 새 아이콘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는 점, 그리고 비록 패배는 했으나 수도에서 25.7%의 투표율을 올린것은 여당에게는 희망이요 가능성을 안겨 주었다는 평가다.

특히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25.7%를 평가하는 것은 이는 2008년 18대 총선때 한나라당 당선자들의 총투표율 22.7%보다 훨씬 높고 작년 서울시장 선거때 오시장이 얻은 총유권자 대비 투표율 25.4%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무려나 오시장이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투표 패배 이틀만에 시장직을 사퇴한 것은 지나친 결벽증과 원칙주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깨끗한 약속이행(사퇴)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듯 싶다.

오시장의 정치·시정의 공과는 시간을 두고 가려질 것이다.

이제 오 시장의 사퇴로 10월 26일을 하반기 재보선은 서울시장선거라는 큰 선거판으로 격상되어 내년 19대 총선·18대 대선의 예비 대선거가 벌어지게 됐다. 더구나 주민투표 승리로 회심의 미소를 짓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교육감선거전 후보단일화 때의 약속으로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사퇴대가로 준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만일 그가 사퇴할 경우 10월 재보선은 서울시장·교육감을 놓고 여야가 재보선사상 최대의 대회전을 벌일게 분명하다.

오 전시장과 민주당 시의회간의 대립은 비록 실패했지만 오시장의 주민투표결행(決行)이 공짜 복지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재정파탄을 막는 불씨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시선을 잡으려는 돈키호테인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국]

TV 史劇 역사왜곡 너무 심하다

인방극장에서 사극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KBS 1TV에선 주말사극 ‘광개토태왕’이, MBC TV에선 월화 드라마 ‘계백’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사극이 인기를 누리면 우리 역사에 무관심했던 시청자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적 교훈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인기에 반비례하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역사왜곡과 날조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방영된 사극을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

‘광개토태왕’은 처음 설정부터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광개토태왕이 왕자 시절 후연(後燕)과의 전쟁 때 요동성에서 맹활약을 했다가, 말갈족과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는 극작가의 지나친 상상력이 빚어낸 역사 날조다.

광개토태왕은 12세 때인 고국양왕 3년(386)에 태자로 책봉되었다가 부왕이 재위 9년 만에 죽자 18세에 즉위했다. 그런데 모용수(慕容垂)가 후연을 건국하고 황제를 칭한 것은 고국양왕 1년, 고구려를 침공한 것은 고국양왕 2년의 일이다. 그 때 광개토태왕 고담덕(高談德)은 겨우 11세의 어린 소년인데 무슨 요동성 파견에 전쟁 주역이란 말인가. 게다가 느닷없이 광개토태왕 담덕에게 답망이란 친형이 있었다는 설정도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날조에 불과하다.

‘계백’도 역사 왜곡과 날조에서 예외가 아니다. 무왕이 권신인 사택(沙宅) 좌평과 왕후에게 휘둘리는 쫓대 없고 우유부단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 무왕은 답대하고 결단성이 있어, 즉위 원년부터 재위 42년간 쉴 새 없이 신라를 공격했기에 죽은 뒤 바쳐진 존호가 무왕(武王)이었다. 또 무왕의 제1왕후가 선화공주(善花公主)요 제2왕후가 사택부인(沙宅夫人)이란 설정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무왕이 사택 좌평 앞에 무릎을 꿇고 제1왕후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나, 지금 그리고 있는 의자와 계백의 어린 시절도 모두가 극작가의 상상력의 소산이다.

사극의 본질은 역사적 사실에 있다. 그 소재가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겠다는 단순한 욕심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청자들은 사극을 보고 그것이 정말 있었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날조한 사극은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 지식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전에 방영된 ‘주몽’에선 두 아이가 딸린 과부 소서노를 처녀로 설정하고, ‘여인천하’에선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을 오라비로 만들어 남의 집 족보까지 제멋대로 뜯어고치고도, 제작 책임자가 ‘드라마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당연한 듯 말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바람의 화원’에선 남자가 분명한 화공(畫工) 신윤복(申潤福)을 남장여자로 둔갑시켰으니 이런 역사 왜곡은 단순한 왜곡을 넘어선 망발 수준이었다.

예를 들면 많다. ‘불멸의 이순신’에서

는 청소년기의 이순신을 인간적으로 묘사한답시고 소심하고 나약한 인물로 그렸고, 거북선이 진수 당일 스스로 침몰한 것으로 그려 참으로 황당무계하기 그지 없었다. ‘연개소문’에선 젊은 시절에 연개소문이 김유신의 집 종살이를 했다가, 이미 죽은 미실공주가 버젓이 산 채로 나온다거나, ‘대조영’에선 젊은 대조영이 연개소문의 집 종노릇을 했고, 여당전쟁(麗唐戰爭)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설정도 전혀 역사적 근거 없는 날조였다. ‘태왕사신기’는 판타지였으니 여러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고구려 사상최대의 강역을 개척한 민족사적 영웅 광개토태왕을 무슨 마법사 비슷하게 그렸으니 어처구니없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이산’이나 ‘왕과 나’도 제대로 된 사극이라고 하기 어렵다. 성종 임금을 질투에 불타는 비람둥이로 그리는가 하면, 주인공 김처선의 출생 시기를 수십 년이나 늦추는 왜곡을 자행하기도 했다.

작가 상상력으로 사실 비틀기 역사 기본 史料 제대로 읽고 제작 나서야

방송사와 극작가의 입장에서는 시청률이 중요하겠지만, 지나친 상상력으로 역사적 진실을 황당무계하게 왜곡하거나 없었던 사실을 날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재미를 앞세우는 드라마라고 해도 역사는 극작가나 제작자들 몇 사람이 마구잡이로 비틀거나 뒤집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진실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극작가든 제작자이든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역사를 가법게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역사를 제멋대로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올바른 역사 교육에 역행하는 범죄와 다름없다. 비싼 제작비와 아까운 시간을 들여 만드는 사극,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고 철저한 고증에 따라 제대로 만들어 방영하기 바란다.

사극이든 역사소설이든 역사적 실체를 작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극이나 역사소설은 역사책이 아니므로 작가적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상상력이 지나친 나머지 있었던 사실은 없었던 듯, 없었던 사실도 있었던 양 역사적 실체를 마구 비틀어서야 되겠는가.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해서야 될 노릇인가. 사극이나 역사소설은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식과 지식과 역사관을 갖춘 다음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기본사료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공부하고 역사소설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기본사료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사극이나 역사소설을 쓰겠다는 것은 참으로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노릇이다.

신윤복을 여장남자로 날조한 ‘바람의 화원’은 김정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역사소설도 어처구니없는 것이 많다. 이수광이란 작가가 쓴 ‘대무신왕’에는 이런 망발이 있다. 대무신왕이 출정하여 부여왕과 상대하는 장면이다. 부여왕이 누구냐고 묻자 대

무신왕이 이렇게 대답한다. “나 대무신이다!” 이런 엉터리도 없다. 대무신(大武神)은 사후에 바쳐진 존호이지 생전의 대무신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 것이다.

또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 자리에서 파면당해 서울로 잡혀갈 때 그를 체포해 간 사람을 금부도사라고 한 김훈의 ‘칼의 노래’(25쪽)는 고증이 잘못되었다. 이순신을 끌고 간 사람은 금부도사가 아니라 선조(宣祖)가 보낸 선전관이었다. 이는

천시하던 조선시대에 뛰어난 운송수단인 수레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나라가 18세기까지 ‘그 어떤 수레바퀴도 이용하지 못한 미개국’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야말로 자기비하요, 자학적 역사관이 아니고 무엇이라. 최인호는 오희분5호묘와 덕흥리고분 등 수많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많은 고구려의 수레와 바퀴를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가. ‘삼국사기’ 잡지 첫머리에 나오는 신라의 수레에 관한 조항을 못 읽었는가. 거기에는 버숨에 따라 수레의 재목과 장식에 관한 제한규정까지 있지 않은가. 또 ‘삼국유사’ 신라 제3대 노례왕(유례왕) 조를 보면 ‘보숨을 만들고, 열음을 저장하는 빙고를 짓고, 사람이 타는 수레를 만들었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를 못 보았는가. 뿐만 아니다. ‘고려사’를 보면 강조(康兆)가 거란 침략군과 싸울 때 검차(劍車)라는 전투용 수레를 만들어 술한 적군을 무찌른 기록도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수레를 사용한 가야의 유민들이 어디에서 건너갔는가. 본인이 말한 대로 김해 등 한반도 가야 땅에서 고구려와 신라에게 쫓겨 일본열도로 망명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김해에서는 없었던 수레를 일본으로 망명하여 갑자기 발명했다는 말인가. 참으로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글이요 역사관이다.

극작가든 역사소설가든 자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역사소설가가 많이 나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책 읽는 재미와 더불어 역사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은가. 다만, 덜 떨어진 역사관과 덜된 공부를 바탕으로 사극이나 역사소설을 잘못 쓰면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잘못된 역사지식을 전달하게 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손끝이나 머릿속에서 나오는 잔재주가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다음에 사극이나 역사소설을 쓰는 것이 좋겠다. 역사는 단순히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요, 미래의 등대다. 과거를 통해 현실의 난국을 헤쳐 나가는 교훈을 얻고, 밝은 미래를 조망(眺望)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세계화시대라 하더라도 제 나라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 각계의 지도자가 되고, 또 세계무대에 나가서 행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미흡한 한국사 교육은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무대에서 다른 나라 젊은이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세계화를 내다보며 자국의 역사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교육을 줄이면서 되레 역주행하는 꼴이니 한심하지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초등학교부터 우리 역사 교육을 시작해야 마땅하다. 우리말과 역사도 가르치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영어 교육에 몰두하는 현상을 두고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사극과 역사소설,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제대로 공부를 한 뒤에 써야 마땅하다. [주]

기본사료인 ‘조선왕조실록’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소설을 썼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고증을 제대로 안 하니 사극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거북선이 진수 당일 저절로 침몰했다는 무지무식하고 터무니없는 망발이 나온 것이다.

언젠가 최인호의 ‘제4의 제국’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가야의 비밀을 파헤친 역사소설인데,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다. ‘...수레, 역설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8세기 때까지 그 어떤 수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5세기에 민족대이동을 감행한 가야 유민들의 핵심세력인 하세족들이 이미 그 무렵 이와 같은 수레를 만들어 토목공사에 사용하였음에도 막상 본토인 조선에서는 수레는커녕 바퀴가 달린 그 어떤 물건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제가의 탄식대로 18세기에도 바퀴가 달린 수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원시적인 미개족 조선, 그러나 가야인들은 이미 그보다 1300년이나 앞선 5세기에 벌써 이와 같은 수레를 사용하여 ‘실고 태우는’ 혜택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2권 64쪽)

참으로 황당무계한 대목이었다. 최인호가 인용한 박제가의 ‘교통기관을 발달시킬 용차론’이란 글에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단군왕검(檀君王儉)의 개국부터 18세기까지 5000년 간 수레건 바퀴건 아무것도 없었던 미개국이란 뜻이 아니다. 특히 조선시대에 중국에게 수많은 소와 말을 빼앗기고, 국토는 비좁고 힘해 수레를 널리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탄식한 소리였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고 하여 상업을 농업과 공업보다

‘왕재산’ 간첩단보도 엇갈린 시각

공안당국이 최근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왕재산’ 간첩단 5명을 구속했다. 혐의자 중 노무현 정권에서 임채정 국회의장 정부비서관을 지낸 이 모씨는 18대 총선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졌으며 1990년대 초반 북한에 포섭돼 최근까지 서울지역 책임자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인천시 구청장 2명 등 시의원과 구의원 등 10여 명이, 민노총은 10여 명이 소환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민주당 민노당은 ‘공안 탄압’, ‘색깔론’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민노당은 국정원 앞에서 간첩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우익은 ‘민노당 해체하라’는 시위를 했다. 2005년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 안택수는 국무총리 이해찬에게 ‘적화는 됐고 통일만 남았다’는 우국 지식인들의 한탄을 전했다. 총리는 상투적인 “색깔론 그만하라”로 맞받아쳤다. 작고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은 남한 내 북한 간첩이 5만 명이라고 했다. 간첩들의 암약상은 북한만이 알고 있다.

왕재산 사건은 주요 이슈로 간주되어 중앙 일간지 거의 전부가 사설로 다루었지만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외면했다. 문화일보는 8월16일 ‘종북세력과의 전쟁, 추호도 흔들리지 말라’는 사설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을 숙주 삼아 반대한민국 세력을 네트워크화하기 위해 북한 내각 225부 지령을 받아 지하당으로 암약해온 ‘왕재산 간첩망 사건’, 종북 프로파간다 월간지인 ‘민족21 사건’처럼 민주헌정을 조롱한 공안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 법정에서조차 ‘김정일 만세’를 외치는 사이버 이적분자들,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은 해사 교관과 현역 장교들, 나아가 그런 정당에 가입한 검사들에 이르기까지 종북의 축수가 산재해 있다. 종북세력은 제주 강정해군기지 현장에 몰려가 치안 불안을 우려해 배치된 경찰병력을 ‘4·3 토벌대’라고 떠벌리며 주민들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종북세력의

발호와 김정일 정권의 측면 지원도 뻗히 예상된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의 종북 세력 준동을 체계 있게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8월1일 ‘정치권을 간첩 아지트 만드는 자들이 누군가’라는 사설에서 “민노당이 ‘야당 유린’이라며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민노




김영한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속사정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정치공세 비난에 앞서 주변을 둘러봐야 할 것이다. 종북주의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혹은 당내에 만연한 시대착오적 대북관이 간첩의 암약을 낳지 않았는지”라고 썼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7월30일 “‘북한 지하당’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

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종북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음습한 용공의 회색적 안개 분위기를 거두려는 체제수호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그의 발언을 선거용 공안몰이로 폄하했고 심지어 “‘종북좌익 세력’의 증거부터 대라”(경향신문)고도 썼다. 일부 좌경 매체들은 총장이 ‘종북좌익’이라고 했음에도 ‘종북좌파’라고 멋대로 둔화시켰다. 그가 말한 종북세력이란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며, 이를 게 하는 세력’이다. 남한에 좌익정권 수립을 위해 혈안이 된 북한이 선거 때마다 ‘전쟁이나 평화냐’를 읊어대고 특정 야당이 이를 선거구호로 복창한 것을 봐도 종북의 존재는 확인한다.

우리 사회에 종북세력은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이를 발본하지 않으면 국기가 흔들린다. 무엇보다 언론의 책무가 중요하며 인터넷은 더 그렇다. 최근 수원지법에서 감형 판결을 받아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부른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 모(43·무직)씨는 단순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이는 이런 구호를 일상화하려는 선동대수법이라고 한다. 이상대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효용을 인식한 북한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대남 선전선동에 활용해왔으며 특히 김정일은 2004년에 ‘한국의 인터넷은 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라고 비유하면서 남한 내 젊은 층의 친북 의식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차별 포격 등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GPS·금융전산망 교란, 중요사이트 마비 등 사이버전을 치밀하게 전개 중이다.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허풍이나 뽀얀 사이버 심리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종북카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암약하는 종북분자들이 인터넷상의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하여 우리의 앞날을 위협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대단히 아쉬운 것이다. [4]

主要紙 사설로 취급 일부선 외면 從北분자 인터넷 이용 暗躍 심각

당이 있따라 간첩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 들어 있는 정당조직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북한은 남한 반정부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방향을 전환했다. 남한 국민의 안보의식 등 경계 태세가 강화되자 북한은 ‘하층 통일전선’ 전략에 ‘상층 통일전선’ 전략을 추가했다. 남한 정부와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층부 인사’들에게 손을 뻗친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2일 사설에서 “민노당은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해야 함이 마땅하다. 민주당도 구태의연한 색깔론 따위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종북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정통야당을 자처한다면 일부 당원의 연루의혹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옳은 자세다”라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8월1일 사설에서 “국회의장 정부비서관은 국회의장을 대신해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자리에 앉아 간첩활동을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판의

(국정원)과 검찰이 전직 민주당 당직자 등 5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당직자도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며 간첩단 사건 연루 당사자인 야당의 반발을 리드에 넣어 사회기사로 취급했을 뿐이다. 좌익에게 유리한 것은 크게 보도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하려는 이중 잣대다. 만약 왕재산 사건이 ‘선거용’이거나 ‘공안탄압’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사설로 반박하는 논지를 펼쳐야 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중 대공 분야 조직의 축소·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를 ‘간첩 망국’의 상태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다. 1998년엔 국정원 581명의 전문정보·수사관이 ‘대학살’ 당했다. 송영인 씨(전 국정원 제주 부지부장) 등 간부 요원들은 복직 소송까지 제기했다. 좌익정권 하에서 보낸 ‘잃어버린 10년’간 우리 사회는 대공전선 외해만이 아니라 수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판단도 함께 잃어버렸다. 이런 사회 상황

‘비가 지겹다.’ ‘금년에 과일이 맛이 없다.’ ‘채소 값이 금값이다.’ 등등…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는 여름 내내 퍼붓는 비로 인해 생겨 난 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세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태풍과 폭우, 폭염, 가뭄, 산불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6월 22일부터 시작한 비는 올 여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왔다. 올해 7월 한달간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1311.5mm. 기상을 관측한 1904년 이래 7월 기록으로는 1940년(1364.2mm)이후 두 번째다. 최근 30년간 7월 평균 강우량(394.7mm)의 3.3배나 된다. 지난 7월 27일 하루 동안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301.5mm로 7월 강우량으로는 최고치이며 일일 강수량으로는 역대 3번째다. 이는 104년만의 기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집중호우와 이상 고온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가 된 것 아니냐는

地球가 위험하다

관측까지 나왔다. 연일 내리는 비 때문에 올 여름이 예년처럼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한반도가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한 ‘넝쿨기’ 날씨에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도 요즘 40℃ 이상의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일 년에 160명 이상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최근 워싱턴 DC와 뉴욕의 기온이 43.3℃를 기록하는가 하면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온도는



김휴선
· 본회 회우
· 전 MBC보도국 부국장
· 현 KOBACO공익광고협의회 위원

47℃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또 콜로라도주 그랜드정크션과 덴버는 41℃를 기록한바 있다. 이와 같이 미국도 폭염과 함께 최근에는 산불, 허리케인과 모래폭풍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폭우에다 연일 38~40℃를 웃도는 날씨로 일사병 환자가 하루에 100명 이상

늘고 있다. 중국도 윈난성, 충칭시, 후난성 등은 100년 이래 가장 혹독한 가뭄

이 찾아와 식수는 물론 농경지가 말라붙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구반대편 남반구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폭설이 내리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사막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하라사막은 강한 모래바람과 가뭄으로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어 나간다. 현재 지구 면적의 19%인 3천만㎢가 사막화되었고 이로인해 1억 5천 만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크다는 아프리카의 ‘차드호’가 말라, 농업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지가 이미 오래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200만명의 주민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급박한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만 280만명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은 빙하가 녹아내려 펴

이 찾아와 식수는 물론 농경지가 말라붙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구반대편 남반구인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폭설이 내리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

사막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하라사막은 강한 모래바람과 가뭄으로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어 나간다. 현재 지구 면적의 19%인 3천만㎢가 사막화되었고 이로인해 1억 5천 만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크다는 아프리카의 ‘차드호’가 말라, 농업과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지가 이미 오래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금 소말리아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1200만명의 주민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급박한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만 280만명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은 빙하가 녹아내려 펴

탐사보도 실종된 TV 메인뉴스

8월 중순 강원도 횡성군 둔내 초등학교에서 언론재단의 NIE 특임강사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방학 특강을 진행했다. 초롱초롱한 눈동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은 즐거웠고 값졌다. 꾸준히 노력하면 뜻을 이룰 수 있고 힘들게 얻는 것이 값진 것이 된다고 가르쳤다. 뉴스도 그냥 얻거나 줌의 것 보다는 기자들이 생각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내는 뉴스가 더 값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탐사보도를 염두에 둔 설명이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생겼다. “선생님 그럼 가장 값진 뉴스가 어느 것인지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질문에 즉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답했다. “여러분도 그런 뉴스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로 해요. 선생님도 찾아보겠어요”

라고 그리고 그 답을 준비하기 위해 8월11일부터 17일 까지 7일간 방송 3사의 메인 뉴스를 집중 모니터 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 여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당히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메인뉴스에서의 탐사보도는 찾아 볼 수 없었고 기자들의 단편적인 생각이나 간단한 노력의 산물인 단순 기획 리포트가 드물게 보일 뿐이었다.

KBS의 경우 ‘여름 흐린 날도 일광 화상에 주의해야 된다’는 정흥규 기자의 보도와 임승창 기자의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온 광복절의 모습’, 이슈& 뉴스에서 김민철 기자 등이 보도한 ‘어린이집 문제’와 김현경 김세정 기자의 ‘정책 한국 열풍’이 그나마 기획기사로 분류가 가능해 보였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가벼운 기획물로 박선하 기자의 ‘극과극의 여름패션’이 눈에 띄었으며 남상호기자의 ‘참사가 있었던 시랜드 옆의 불법 휴양시설’ 고발 보도는 같은 날 SBS 8시 뉴스와 같은 내용이 보도돼 빛이 바랬다. 기획 기사의 경우 SBS 8시 뉴스에서는 ‘거주자 주차구역 업소들이 싸늘이’, ‘소방관 순직 사유 차별’, ‘세대 간 일자리 전쟁’, ‘못 믿을 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 등이 그런대로 시선을 끄는 아이템이었다. 빈약한 기획기사가 있을 뿐

TV 메인 뉴스시간에 걸맞는 탐사보도는 보이지 않았다.

1990년 대, 방송3사의 메인뉴스가 탐사 보도 경쟁에 열을 올렸던 때가 있었다. 어려운 시기였으나 기자들은 탐사 보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특정 보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기도 했었다.



호천웅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LA 지국장
· 수필가

방송사간 차이없는 리포트 반복 사회적 이슈 추적노력 되살려야

TV 뉴스에서의 탐사보도의 실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세대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방송기자로 존경하던 N선배를 만났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취재대상이 될 사회적인 문제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방송사의 후배기자지만 지금은 보도 파트의 핵심인 중견 간부에게 민원 겸 정보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다.

중견 간부는 “귀한 제보 고맙습니다”라며 민원기자에게 특별히 지시해서 보도하겠다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그 지인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그 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얼마 후 그 지인을 만났는데 그 취재를 맡기로 했다는 기자에게 내용과 취재할 대상과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흐뭇해하더라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만난 지인으로부터는 엉뚱하고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두 번째 만난 그 기자가 말하기를 내용과 관계없이 취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상사인 간부

들이 있었는지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십분 이해 할 수 있었다. 개인적인 느낌이나 받아들이는 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취재와 보도 여부는 그 사실이 뉴스거리가 되느냐와 공익성 여부로 판단돼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일선기자들의 자기주장이 강하고 데스크의 기능이 적지 않게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게 생각났다.

요즘 TV 뉴스를 시청하다보면 탐사보도 아이템이 거의 보이지 않아 밋밋해진 뉴스가 안타깝고 때론 방송사간 뉴스 차이가 거의 없어 답답하고 같은 리포트가 이틀이나 3일 연속 방영될 때는 짜증스럽기도 하다. 쉽고 편하게 하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드러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든 사실들이 시시콜콜 알려지는 세상에서 구태여 힘들고 위험 할 지도 모르는 탐사보도를 찾아 나선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우스운 일일 지도 모른다.

여기서 뉴스의 종류를 생산하는 방법과 과정에 따라 구분해 본다. 그리고 탐사보도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첫째는 전달하는 뉴스이다. 정부기관이나 정치

단체 등의 홍보 자료나 말을 전달하면서 필요하면 의견을 첨삭하는 가장 일반적인 뉴스가 될 것이다. 둘째는 찾는 뉴스다. 부지런히 뉴스 취재원을 찾아다니고 뉴스가 있을 만한 곳을 헤맨 결과로 뉴스를 얻는 경우이며 인터넷 서핑을 통한 취재도 여기에 포함 될 것이다. 셋째는 줌의 뉴스다. 우연히 사건, 사고 현장에 부딪쳐 특종을 하거나 지인의 말을 듣거나 자료 등을 얻고 주워서 뉴스화 하는 경우일 것이다. 넷째로 만드는 뉴스이다. 기자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이슈를 만들어 내며 해법을 찾는 것이다. 만드는 뉴스 가운데 가장 힘들게 취재 제작되고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것이 탐사보도일 것이다.

언론학자들은 탐사보도란 사회적인 문제를 기자가 직접 찾아내고 그 문제의 사회적 해악을 파헤치고 고발하므로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탐사저널리즘이 취하는 취재 보도 방법은 파헤쳐야 하고 고발해야

하며 폭로해야 하고 감시해야 하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시간에 쫓기는 방송보도의 여건상 탐사저널리즘(Investigative Reporting)을 발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뉴스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갖가지 사회적인 해악이 많은 곳에서 활개치고 있는 현실에서 TV뉴스의 탐사 기능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사회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부정과 비리를 고발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회정의의 구현하는 그리고 근원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방송뉴스의 탐사적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회악을 척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탐사보도에 매달리는 기자가 대우받는 사회, 그런 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한다. 주요 방송사들의 메인 뉴스가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단 한건 정도라도 멋들어진 탐사보도를 하고 그래서 시청자들의 갈채를 받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E]

6면에서 이어집니다.

권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북극을 대표하는 하얀 곰들도 유빙(流水)에 떠내려가다 익사하거나 굶어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온난화에 의해 지구 전체 담수량의 90%를 가두고 있는 남극의 빙상이 일 년에 약 1조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얼음덩어리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길리만자도와 아르헨티나의 페리토 모레노빙하 등 세계 각국의 만년설이 하나 같이 녹아내려 속살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지구 곳곳에서 물 공급이 감소되고 있다. 더욱이 이산화탄소가 2배로 증가되는 2050년경에는 산악 지역의 빙하가 25%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물 공급부족으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바다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어획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모작(多毛作) 농사가 가능해지지만 병충해가 늘어나 토양이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극지역의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안지대 대부분이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인간은 스트레스와 질병이 두 배로 증가하게 되며 전염성 질병이 만연해지고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확산돼 우리나라도 열대성 질병의 발생이 예상된다. IPCC (유엔정부간위원회)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1℃ 올라가면 양서류가 멸종하게 되고 2~3℃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경에는 지구생물의 20~30%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2080년경에는 지구 생물 대부분이 멸종위기에 처해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나 할까? 다 인간이 저지른 재앙이다. 나 하나 안 버린다고, 나 하나 안한다고 하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이렇게 큰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고 천재 이세석은 작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자연보호’ 보고대회에 이런 광고를 냈다. “코끼리가 싸놓은 큰 똥에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옆에서 쓰레받기를 들고 치우는 시늉을 하는 광고”다. 이는 세계인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구상에서 공해를 제일 많이 내는 미국과 중국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한

다는 내용이다. 참새 같은 작은 나라가 아무리 줄여 봐야 별 효과가 없고 큰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Al Gore) 씨는 그의 저서 긴급 환경리포트 ‘불편한 진실’에서 미국이 1997년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 때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자연을 살리자는 선거캠페인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일주일 후에 폐기처분했다는 것이다. 아마 부시도 포퓰리즘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지금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세계가 함께 힘을 합쳐 하루빨리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라진 것처럼 지구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 지구는 심각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하다. [E]



물이 만드는 똑똑한 세상



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찌 그대들 이리도 아둔하고 게으르단 말인가. 지금 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한번 뒤돌아보거여. 아마 스스로 판단해도 어썩잖고 심히 부끄러울 게요. 정치한다는 사람, 행정직에 있는 사람, 외교관이라는 사람, 학자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외다.

그대들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들먹이며 희망버스나 타고 다닐 때인가 말이오. 시도 때도 없이 뇌물 받을 공리나 하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고소 고발을 일삼고 외교행낭에 금수품을 넣어오고 TV에 나와 뒷북이나 칠 때난 말이오. 이참에 자화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구려.

지금이 어느 때요. 독도가 저의 나라 땅이라고 생트집이고 동해가 일본해라고 우겨대고 있질 않소. 백두산도 저희 것이고 고구려도 저희 역사라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오. 지금 국민들 가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무상급식 무상보육, 말은 좋아요. 밥 굶는 사람, 돈 없어 자식 교육 못 시키는 사람 불쌍하고 안타까워 돕고 베풀겠다는 것 좋은 뜻이오.

그런데 그거 그대들 사재 털어서 하겠다는 거요? 국민이 허리띠 졸라매고 낸 세금 가지고 그대들이 생색을 내겠

다는 것 아니요? 집중호우에다 찔통더위로 정신 가누기가 어려운 판인데 그대들의 허풍선이 놀음에 박수쳐 달라니 이제 기가 막힐 지경이오.

글쎄, 희망버스 타고 다니면서 희망을 몇 움큼이나 찾았소. 독도에 가서 텐트치고 하룻밤 묵으니 마음이 몇 가닥이나 뿌듯해졌소. 그대들을 보노라니 인공 때 빨갱이 앞장서서 설치대던 동네 머슴들이 생각나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분명하오. 동해가 일본해가 아닌 것도 분명하오.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땅이었고 수백 년 전부터 동해라고 세계 각국이 인정해왔단 말이오.

일본이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냥 허무맹랑하게만 보이오? 아니외다. 개들은 역사적 사실(기록)을 가지고 부딪쳐오는 게요. 그리고 그게 국제사회에서 먹혀들단 말이오.

우리도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면 되는 것이오.



최 병 요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그거 외교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나 있소? 주재국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나 보니까 일본의 엉터리가 먹혀들고 있는 거요.

일본이 백 년 전의 기록을 들고 나오면 우리는 삼백년 전의 기록을 들이대는 거요. 그리고 우리도 역지를 좀 부러보란 말이오. 대

마도가 처음부터 일본 땅이었소? 그거 우리 땅이오. 우리의 속령이었던 말이오. 우리가 실효지배 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와 있단 말이오. 현지에도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고 미친 척하고 객기를 부릴만한 배짱이 없단 말이오? 그대들 말만 정치하는 사람이고 외교관이니 혹시 무지렁이 아니오?

학자연하는 사람들 말이오. 프랑스와 영국 등은 수백 년 전부터 동해 또는 한국해라고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왔다면서요. 미국도 몇 십 년 전까지는 그렇고요.

세상이 다 아는 그런 것을 왜 감춰두고 무슨 사안이 벌어지고 나서야

TV에 얼굴을 내미나요? 일본에서 출생한 독도문제 전문가 호사가 유지 교수를 아시나요? 일본사람도 그 정도인데 우리네 역사학, 서지학 하는 분들 달리 무슨 생각에 골몰하는지 궁금하외다.

이제 정신들 차리시오. 국제관계가, 외교문제가 일시적 감정이나 불품없는 소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의 철부지 행동이 참으로 가관이오. 생각을 가다듬고 머리를 쓰시오. 그대들 끄떡하면 내세우는 이성과 철학으로 대응하란 말이오. 미친개에게 무작정 대들면 물리기밖에 더 하겠소? 몽둥이로 으름장을 놓거나 아예 못 본체 피해버리란 말이오. 괜히 굶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살살 어르면서 재풀에 나자빠지게 만들란 말이오.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주범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기억하시오? 그 사람들 원래 관창은 사람들이었소. 어느 순간 사육에 눈이 멀어, 엉뚱한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 지금의 그대들처럼 국가와 민족의 장래 운운하며 앞뒤 없이 설치대다가 매국노라는 심판을 받게 된 거요.

소명의식에 아둔하고 자기 책무에 게으른 그대들의 작금 행태를 보노라니 앞길이 너무도 뻥해서 그저 답답하다는 생각뿐이오. [4]

時 論

‘亡國的 공기’ 막아야 한다

정치학자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통치방법은 독재정치라고 한다. 다만 독재자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환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 민주주의 통치 방법이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 민주주의 통치가 가장 완전무결하고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통치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 이념에 가장 가까운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의 몇 개 나라가 있을 뿐이고 그 이외는 민주주의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독재, 전제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유약해서 잘 지키고 잘 키우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자연상태(Natural State)와 같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마치 물과 공기와 같이 공짜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도 무지(無知)했고 전혀 공을 들이지 않아 애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해 반세기가 훨씬 넘는 지금, 건국초기 보다도 퇴보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꽃피운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를 키우고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심지어는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정치가나 애국적인 인물이라도 최소 10년 넘게, 또는 한평생 아테네에서 추방했고 이들을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독립을 이끈 독립지사들은 건국 초기, 진정한 민주주의를 후대에까지 계승시키고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애쓴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어느 개인의 권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권익을 위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엄청난 비용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고 지금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레이건대통령의 스타워즈구상(전략방위구상·SDI)을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국회가 반대하자



박 진 서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핵전쟁 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해 통과 시켰던 사례를 들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수는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토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는 자유로운 토의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국회 안에서는 토의 대신 반대의 수단으로 전기 톱과 쇠파지가

등장했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는 거짓과 모략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망국적인 pneuma(空氣)를 퍼뜨리고 있다. 의회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실명한 것과 같다. 이제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의와 여론은 자취를 감추고 무조건 반대 위주의 공기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이 공기의 특성은 지지나 찬성이 아닌 반대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또 이런 공기가 팽배하게 되면 시비선악의 객관적 판단도 할 수 없고 실정법도 무시하게 되

어 어떤 방법으로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처절하게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망국적 공기의 엄청난 파장을 직접 눈으로 보아 왔다.

아들의 병역특혜란 확실치 않는 루머를 퍼뜨려 당선이 확실시 되었던 여당의 대선후보를 낙마 시켰고, 투표 당일 세대간 갈등에 불을 붙여 당선이 거의 불가능 했던 야당 대선후보를 전격적으로 당선 시킨 사례도 보았다. 지금도 이러한 공기로 인해 진보와 좌파를 혼돈케 호도하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종북(從北) 세력이 공공연하게 활개를 치도록 국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은 항상 수적 우세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있다. 지금까지는 수적우세를 위해 금권이 크게 작용했지만 요즈음에는 개인의 이익을 미끼로한 포퓰리즘을 내세운 공기를 손쉽게 마구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망국적 작태의 주인공은 여야 정치인 모두가 포함되고 지식인 그리고 반대만으로 먹고 사는 NGO들이다. 그래도 이런 pneuma를 정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언론뿐이다. 이제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나설 차례다. [4]

핀 향한 一片丹心... “人生도 골프처럼”

골프 丹心歌

그 샷이 미스나고 고치려다 또 미스났네
스코어 만지되어 닢 잃도록 기가 차도
핀 향한 一片丹心이야 변할리 없으리라'

골프 何如歌

맞은들 어떠하며 안 맞은 들 어떠하리
스윙이 엉망되어 백타넘은들 그 어떠하리
잘 맞기 기다려 백세까지 즐기리라

고려 말 정몽주의 '丹心歌'와 이방원의 '何如歌'를 패러디하여 쓴 崔永定 본회 원로회우의 시조 '골프 丹心歌'와 '골프 何如歌'이다. 국내 1호 골프기자인 최 회우는 골프 시조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핀 향한 一片丹心이여'를 최근 펴냈다. 80세 기념 골프 시조집 출판기념회는 지난 4월 18일 호텔리츠칼튼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나이를 잊은 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는 그를 지난 8월 10일 낮 서울 용산구 서계동 집필실에서 만났다.

비좁은 계단을 4층까지 걸어올라 집필실에 들어서니 국내외 골프서적들이 벽면에 빼곡하다. 지금까지 모은 책이 3000권이 넘는다. 건장한 체구에 건강미가 넘친다. 집무실 출입구 벽에는 '바람의 파이터'로 잘 알려진 최배달(1922~1994)이 1951년 황소와 세기의 격투를 벌인다는 일본 순회 공연 낚은 포스터가 붙어있다. 최배달의 본명은 최영의, 최 회우의 친형이다. 태권도 9단, 공수도 9단, 유도 5단, 중국 남권, 태권 등 각종 무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의 소유자. 전 세계를 돌며 100회 이상 벌인 다양한 무술 고수와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최 회우 또한 유도 3단에 씨름판에서 황소를 탄 무골형이다.

시조운율에 골프 접목

-골프시조집을 펴낸 동기는?

"골프와 시조의 행간을 재미나게 해보자는 의도로 시조 운율에 골프를 접목시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골프에 얹힌 애환을 쉽게 풀어 써보자는 의미지만 시조형식에 글자 수를 맞추려다 보니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어 '시큰둥 시조'라고 주석을 녹였어요" 라운드가 잘되면 '노세노세 젊어 노세...' 라운드가 엉망이면 '...석양이 재넘어가노니 입자 그려 우노라...' 등을 예로 들며 "골프는 시조적이고 시조는 골프스럽다"고 말한다.

-40년 넘게 우리나라 골프 발전 과정을 지켜 본 골프계의 산 증인이다. 골프실력은?

"1987년 호주에서 휴인원을 한 적이 있어요. 7번홀(파3·121m)에서 7번 아이언으로 친 공이 핀 방향을 조금 벗어났지만 그린에 떨어진 공은 경사를 타며 핀 쪽으로 5m 정도 옆으로 곡선을 그리며 휘더니 홀로 빠져 들었죠. 취재를 통해 많은 휴인원을 구경했지만 정작 자신의 휴인원은 큰 감흥을 받지 못했다"며 웃는다. 그는 잘 나가던 시절 핸디캡 10, 베스트스코어 76타, 프로골퍼를 능가하는 장타자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입사동기이자 도서출판 삶과 꿈 대표 김용원 씨는 "최영정과 필드에서 플레이를 해본 사람들은 그의 올곧은 매너와 교과서적인 스윙폼에 놀라게 된다"며 한 칼럼에서 소개했다.

- '이것이 골프 매너다'라는 저서도 펴냈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8>

회우초대석

崔永定

인터뷰 글·사진 이규



“골프도 인생과 닮았다”고 강조하는 최영정 원로회우.

68년 멕시코 올림픽 취재 계기 국내 골프기자 왕성한 집필활동... 八旬기념 시조집등 저서

다. 골프에서 매너란 무엇인가?

"영국이 낳은 명 골퍼 에이버 미첼은 '골프에서 매너가 첫째이고 스코어는 둘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법이다'는 명언을 남겼지요. 또 '볼을 잘 못치는 사람과 함께 라운드를 할 수는 있지만 매너가 광인 사람과는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본적인 매너는 누구나 아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는 스코어를 카드에 스스로 적는 일이 없으며 멀리전을 너무 주거나 받거나 하고 김미(gimme) 퍼트, 즉 'OK'도 필수 예의 인양 주고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골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언론계 골프 매니어를 꼽는다면?

"2007년 본보에 '언론계의 골프 꾸러기'를 3회에 걸쳐 소개한바 있습니다. 언론인 골프를 부흥시킨 트리오에는 한국일보 장기영 사주, 함동통신 박두병 사장, 동양통신 김성곤 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영 사주는 '대문' 역할을 자임하며 바람잡이이자 '봉'이 되기를 꺼리지 않았지요.

'골프신사' 박두병 사장은 실력에 매너까지 갖췄어요. 김성곤 사장은 경기골프에도 집착이 강한 지기 싫어하는 '不倒翁'이었 습니다."

1970년 7월 언론인 최초로 골프모임 '七月會'가 발족했다. '골프망국론'의 논객 최석채씨가 골프에 입문하면서 신문계의 화제로 등장하던 무렵이다. 신문발행인 골프모임이 기폭제가 됐고, 회원 수를 제한 할 정도로 붐이 일었다는 것. 그 뒤 언론사마다 골프모임이 생기고, 회원 이동이 잦은 데다 언론-골프 유착 우려가 대두되면서 '매스컴회'는 12년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회고한다.

최영정 회우는 골프 칼럼니스트로 명성을 날리며 지금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한다. '칼럼·골프의 세계'(1986), '19홀의 세미나'(1991) '골프는 세상을 바꾼다'(1998), '한국 골프 인물사'(2000), '두뇌골프'(1994) 등 17권의 골프 관련 저서를 남겼다. 지금까지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한 칼럼이 3만 건을 넘는다. 한창 잘 나갈 때는 팔이 아파 글을 쓰지 못할

만큼 바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글을 쓰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했다.

-요즘도 원고를 육필로 쓰시는지요?

"네~, 잉크가 잘 나오는 파카 만년필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모시킨 만년필만 수십 개는 넘을 겁니다.

-컴퓨터 워드로 쓸 계획은 안 하셨나요?

"컴퓨터는 물론 아직까지 휴대폰도 없습니다. 집에서 TV도 잘 안 봅니다. 딸이 컴퓨터를 사줬지만 불편해서 포기했어요. 문명의 이기는 빠르고 편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만들어요. 뉴스도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 보다 읽어야 제 맛이 나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구시대적 思考인가 봅니다. 그래도 큰 불편 없이 살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안 보고 컴퓨터와 휴대폰도 없으면 IT시대의 '골동품'이자 인간문 화재감"이라고 말하자 "그런가요?"하며 웃는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최 영정 회우는 1931년 전북 김제출신으로 전주고, 전북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

처럼 살아가요”

水定

- 전 조선일보 체육부장
- 전 한국신문인크 대표
- 골프 칼럼니스트

섭 (본보 편집위원 · 칼럼니스트)

했다. 이리공고 영어교사를 하다가 1959년 조선일보 수습기자 27기로 입사했다. -영어교사를 하다가 신문기자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활자매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 월간 ‘농업경제’를 구독하며 전공을 살려 농업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잡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교사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려던 차에 조선일보 기자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국어, 영어, 상식, 논문 가운데 영어 성적이 좋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사동기로는 이규태, 신종오, 김

“1969년부터였지요. 서울CC 운영위원장이던 허정구(1999년 작고) 회장이 ‘골프를 알려면 쳐봐야 한다’며 자신이 쓰던 클럽 중 ‘하프 세트’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일안, 한장상 프로에게 처음 골프를 배웠고 이후 손흥수, 문기수, 조태운 등 당대 이름 있는 프로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그러나 프로마다 교습 내용이 달라 헛갈렸고, 외국에서 발간된 골프 책을 보며 스스로 터득한 거죠”

-골프 취재 에피소드는?

“박정희 대통령은 골프 마니아는 아니었지만 주 1~2회 정도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골프장을 찾았어요. 골프 파트너는 주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었고, 간혹 김 부장이 데리고 온 기업인들과 함께 쳤습니다. 어느 날 박 대통령이 골프를 친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CC(현 광진구 능동 어린이



1968년 멕시코올림픽 취재현장에서의 망중한. 오른쪽부터 최영정 조선일보 체육부장, 서울신문 정달선 부장(취재단장), 카메라 촬영중인 한인성 중앙일보 부장.

자 1호 기록 17권 펴내

용원 씨 등이고, 당시 편집국장은 천관우 선생입니다.” - ‘골프 망국론’이 나오던 시절 골프기자 1호가 된 계기는? “수습을 마치고 사회부와 국제부 등에 근무했어요. 당시 윤주영 편집국장이 유도 3단에 씨름도 잘 하니 체육부에서 일하려고 보냈어요. 1968년 멕시코올림픽 골프 취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하게 골프인생 40년의 시작이었죠.”

기자출신으로 골프 기사를 쓴 것은 조선일보가 처음이다. 골프에 대한 국민정서가 좋지 않아 다른 언론사에서는 골프장에 출입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 보도하던 시절이다. 조선일보 방일영 사장, 방우영 전 무가 골프에 심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당시 취재러야, 유명 인사들이 ‘어디서 누구와 골프를 쳤는데 몇 타를 기록했다’는 동성정 보도가 고작이었다. 골프장을 출입하는 인사들도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정계 고위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주류를 이뤘다.

-골프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배웠는지요?

이대공원)로 갔다가 김형욱 부장의 홀인원을 목격했고, 그에게 들켰지만 기분이 좋아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대통령 일정은 보안사항이라 골프장에서도 함구하기 일쑤였으며 골프장에 잠입해 취재하다가 경호원에게 붙들려 쫓겨나기도 했고,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골프를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

“티샷부터 홀 아홉까지 이어지는 플레이는 인생과 많이 닮았습니다. 벅커와 워터헤저드의 난이도는 삶의 위기 극복과 비슷하고요. 누구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 동반 경기자가 누구냐에 따라 스코어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 회우는 “인생의 홀인원은 아니더라도 반평생을 골프와 더불어 살아온 삶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처럼 ‘끝이 좋으면 다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고 강조한다.

-요즘도 필드에 나가시는지요?

“골프는 건강과 경제력, 동반자 3박자가 맞아야 하는 데, 요즘은 함께 필드에 나갈 동반자가 줄어들었다”며 웃는다.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골프채를 잡는다는 것.

언론사 퇴임 후 신문협회 사무국장과 한국신문인크 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1995년 레저신문이 제정한 제1회 골프라이터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감인 부인 차貞順 여사 사이에 3녀 1남. 외동아들 승욱씨도 한국경제에 근무하며 언론인의 뒤를 잇는다. [국문]

生活斷想

方山磁器와의 인연

나의 고향은 강원도 양구(楊口). 중동부 전선의 휴전선을 접하고 전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작은 군(郡)이다. 양구에서 출생,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기에 양구 고향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1972년 부산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 우연한 기회에 고미술에 조예가 깊은 강원일보 한영달(韓英達) 기자로 부터 양구 방산자기(백자)는 꾸미거나 치장한 것이 없고 소박



박 기 병

- 본회 발전기획 위원장
- 전 강원민방 사장
- 6·25참전 학도병

한 정서가 그대로 녹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방산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로부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방산자기(方山磁器)수집에 나섰다.

우선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며 수집에 나섰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골동품점이라 해서 다량으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집이 쉽지 않았다. 지방출장 및 해외(중국, 대만) 출장 가는 기회에 골동품점을 돌며 한점 한점 모았다. 문경(聞慶)의 국회의원 선거유세 출장 시 시내식당에 식사하러 들렀을 때 식당 부엌 뒤편에 높이 11.8cm 구경 8.6cm 지경 7cm되는 백자청화문호(白磁靑畫紋壺) 항아리를 소변통으로 쓰고 있는 것을 발견, 다른 항아리로 바꿔주고 수집했고 중국 연변출장시 고물상에 들러 소형청화백자호(小形靑畫白磁壺)를 3만원에 구입하기도 했다.

수집한 양구방산자기는 백자 청화 양구방 명호 백자청화목단문호 백자청화 초화문호 소형 청화 백자호 백자병등 57점이었다. 방산자기를 수집하면서 “흙은 만물의 기원이자 탄생의 시원(始原)이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인 도자기는 그러한 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더욱 위대하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자기는 서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가장 폭넓게 사랑받는 공예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방산자기의 순수한 색조 하나만으로도 조상들의 따뜻했던 마음을 새삼 더듬어 보는것 같았다. 한마디로 양구 방산자기는 담백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2003년 4월 양구군청 임경순(任璟淳)군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군수가 양구에 방산자기박물관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신청할 근거가 없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장한 방산자기를 기증하겠다고 제의, 소장품 57점을 모두 군(郡)에 기증했다. 양구군은 기증한 57점의 방산자기를 양구방산자기박물관 건립의 초석으로 삼았다.

양구방산자기박물관은 2006년 6월 27일 사업비 41억원을 들여 총부지 8,160㎡에 체험관 230.40㎡을 건립하여 개관 했다. 현재 400점에 이르는 자기를 전시하고 있다. 매해 1,2회 정도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관람객과 체험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옛 가마터를 발굴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가마도 제작했다. 기존의 제토(制土)시설을 이용, 백토를 가공 정제하

여 문화상품도 만들어 전통가마에서 구워내고 있다.

양구지역 특히 방산면(方山面)은 예로부터 백자와 백토가 유명하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방산자기는 양구방산지역에서 나오는 백토로 만들어진 백자를 말한다. 백자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신증 동국여지승람’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토에 관한 기록도 여

러곳의 문헌에서 확인이 된다. 양구에서 처음 백자가 제작되었던 시기는 ‘이성계 불사리장엄구일괄품’과 여러 관사명이 새겨진 백자의 발견 등을 통해 고려 말부터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구에서 고려 말부터 백자가 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백토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자기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와 빨감도 자기제작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다.

방산면 일대에 매장되어 있는 백토는 철분함유량이 0.1~0.6%로 아주 적어 백색도 높은 자기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수한 원료가 양구지역에 존재했기 때문에 1350년경부터 내륙으로 확산되었던 강진일대의 사기장들을 비롯한 여러 사기장들이 양구지역에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자나 분청사기의 제작보다는 백자의 제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467년 경기도 광주에 왕실자기를 제작하던 분원이 설치된 이후에 양구지역의 자기소는 공납자기를 제작하던 곳에서 지역민이 사용하는 자기를 만드는 곳으로 성격이 바뀌게 됐다. 광주의 자기소들은 질 좋은 백자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에서 양질의 원료를 공급받아 왔는데 주요 공급지가 양구지역인 것은 물론이다. 양구지역의 백자 제작은 분원으로 백토를 공급하면서도 계속되었고 분원이 번성한 이후에는 분원 자기 제작사기장의 일부가 양구지역으로 유입되어 분원의 기술력이 이전되기도 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백자의 원료매장지로 주목받았었으며 1933년에는 도자기 공동작업장 등과 함께 상당히 많은 자기소가 양구지역에서 운영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요업이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6·25한국전 이후에는 2개소의 가마가 현대적 시설로 명맥을 유지해오다 1993년 강원대와 이대박물관에 의한 지표 조사결과 양구지역의 가마터를 확인하게 된 것이 박물관 건립의 계기가 됐다.

양구 방산자기박물관은 우리 도자 문화의 역사에서 가장 서민적 대중적이며 한국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선백자의 시대적 색깔을 현대적 관점에서 계승하고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강원도적인 양구의 색깔을 지켜내며 대대로 내려온 값진 문화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는데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문]

‘세 사람에 한 사람(ONE IN THREE)’은 영국의 저널리스트 아담 위셔트(Adam wishart)가 암의 역사와 과학(치료방법)의 진전을 역학(疫學)적인 정보로서 집성한 저서다. 책이 출간된 2006년 현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린다는 대단히 위협적인 현실을 책제목은 드러내고 있는데 암에 걸린 아버지를 이야기의 축(軸)으로 암과 싸워온 인류의 역사가 전편에 깔려있다.

1962년 출간된 미국의 생태학자이자 저술가인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쓴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현대 과학문명이 환경오염과 훼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주지시킴으로써 사회운동의 기폭제가 된 경세(警世)의 고전적 명저다. 그런데 ‘침묵의 봄’이 출간된지 2년뒤인 1964년 레이첼 카슨은 암에 걸려 56세를 일기(一期)로 이성을 떠난다. 그러므로 ‘침묵의 봄’은 그녀의 유저(遺著)인 셈이다.

농약과 살충제 등 화학물질의 과다 사용이 자연생태계를 허물어 뜨리고 인류를 암의 늪으로 끌어넣는다는 레이첼 카슨의 경고는 현재 진행중인데 ‘침묵의 봄’ 제 16장의 제목은 ‘네 사람에 한 사람(ONE IN FOUR)’이다. 그러므로 저자 자신이 ‘네 사람중의 한사람’이 있던 사실은 누가 알 수 있었겠나? ‘침묵의 봄’이 출간된 1962년부터 ‘세 사람에 한사람’이 간행된 2006년까지 44년 동안에 암 이환율은 25% 불어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21세기의 중간지점인 2050년이 되기 훨씬 전에 ‘두 사람에 한 사람’ 곧 2대 1의 암 이환율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생명체 중에서 유독 혼자만 암유독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했다.

‘세 사람에 한 사람’은 역학적인 정보를 드라마로 엮고 있다. 목차를 훑어보면 대강은 알 수 있다. 글머리 제 1장은 ‘암의 등장’이다. 태고적으로 거슬러 오른다. 제 2장 1831년 ‘수술’의 부제는 ‘피투성이 해체작업’이다. 마취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 중국인 노동자의 26kg이나 되는 복부종양을 메스로 덜어내는 ‘해체작업’은 도살장 광경처럼 처참하다.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3장 ‘세포의 과학혁명’을 지나 제4장 ‘방사선’-퀴리부인의 새로운 광선에 이르러 암치료방법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7장 ‘암과의 싸움’-닉슨의 암 박멸계획에도 암은 여전히 불어난다.

그것이 1967년의 일이므로 ‘침묵의 봄’이 충격을 준지 7년 뒤의 일이다. 그 뒤로 또 10년, 1979년의 제8장은 ‘대체요법’-근대의학에의 반발이다. 메스로 환부를 덜어내고 조사량(照射量)의 강약에 따라 생물을 죽이기도 하고 질병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무서운 방사선을 쬔고, 암세포를 죽이는 힘과 정상세포를 죽게 하는 항암제로 절이다시피하는 현대의 서양의

병은 낫는다 체험적 養生法 ⑪

癌은 지척에 있다 ①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료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연출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암 환자는 외과수술, 방사선, 항암제 삼위일체의 살암(殺癌) 병기에 의해 꼬챙이처럼 마르고 머리칼이 다 빠져서 전혀 못보던 다른 사람으로 변모한다.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좌절감을 생각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위해선 어떤 대상(代償)도 지불해야 될 것이고, 부작용 없이 치료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대체의료를 금기시하는 현대서양의료(종사자도)의 폐쇄적인 생각은

은 불규칙하고 체력과 인내심에 자신있고 감기 드는 일이 없고, 맑은 일은 거뜬하게 해내는... 대충 이런 사람이 실증체질이 라니 원기 왕성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다. 모를 일이되 요컨대 불규칙한 생활습관에 오버워크(Over Work)를 일상적으로 계속하면 중대한 트집, 곧 암이 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다.

그와는 반대로 체질적으로 원기왕성한 ‘실증’보다는 좀 비실비실한 ‘허증(虛證)’ 체질은 암에 훨씬 덜 걸린다니 이상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분 · 아미노산 과잉섭취 말아야

바뀌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세 사람에 한 사람’은 많은 드라마로 채워져 있어 읽어볼만한 책이긴 하지만 유용한 정보 보다는 역학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불가불 다른 책이 등장하게 된다. 드라마는 암을 예방하거나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 약과(藥科)대학의 Tei Munetetsu(丁宗鐵)교수가 쓴 ‘암이 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은 올해(2011년) 5월에 출간된 최신서적이다. ‘ていむねつ’를 우리 음으로 읽으면 ‘정종철’인데다가 소장(소장)으로 있는 진료소 이름이 백제(百濟)이므로 영락없이 한국어로 보이니 그건 어쨌거나 그의 저서는 실용정보로 엮여져 있다.

정 교수는 일본 요코하마(横浜)시립대학의학부 대학원을 마친 뒤 유명한 기타시토(北里) 연구소에서 동양의학종합연구소 연구부장을 지냈으며 미국 슬론케터링 암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을 거쳤으므로 동·서의학의 겸전한 학구(學究)적인 의사다. ‘암이 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은 동·서 의학을 아우른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책의 부제 ‘한방(漢方)치료의 현장에서’가 말하듯 동양의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암은 어떤 체질의 사람이 잘 걸리나. 암에 걸리는 사람은 90%가 ‘실증(實證)체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실증체질은 어떤 체질인가? 잠을 모자라게 자도 거뜬하고, 먹성이 좋아 식사 시간이 짧고, 찬것 좋아하고, 바빠서 한 끼 걸려도 거뜬하고, 생활리듬

지만 유전자 손상으로 암이 발증(發症)할 메커니즘은 아주 복잡하므로 아이스크림을 즐겨먹는다고 해서 암화(癌化)가 시작되고 아이스크림을 금식한다고 해서 일단 시작된 암화가 멎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는 낮에 밥먹고 식당을 나오면서 동행이 카운터에서 집어준 캔디를 무심코 입에 넣었다가 곧장 뱉어버린다. 이렇게까지 신경과민이 될 건 없겠지 만 나는 일상으로 야채와 과일을 주식처럼 먹는 터이므로 당분과당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요즘 과일은 세상사람의 입맛에 맞추느라고 과수 재배자들이 고당도(高糖度)에 주력해서 옛날과 다른 몹시 단 과일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스나 케이크 등 과당(果糖)이나 사탕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화관은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상부(소화관)에서 흡수 하므로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다이렉트로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으로 축적된다. 소화관이 높고 먹게 되면 기능과 함께 대사(代謝)가 떨어지고 마침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들어 왔기에 안성맞춤이 된다는 것이다.

인체는 약 60조(兆)개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수많은 세포중 단 한개의 반란으로 암화는 시작된다. 단 하나의 세포가 무한증식을 시작함으로써 발동이 걸리는

암화의 미친 창업자(initiator)는 유전자(DNA) 손상으로 정상세포가 변한 것이다. 일단 암세포가 무한증식을 시작하면 그것을 촉진시키는 조장자(助長者·promoter)가 있게 된다. 그 프로모터는 화학물질,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그 구실을 담당하게도 되는데 담배, 술, 스트레스 등은 이니시에이터도 되고 프로모터도 된다.

당뇨병, 고혈압, 간장병 따위도 일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영양소는 당분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미노산(酸)이라는데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요소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영양소이기는 하나 아미노산의 과잉섭취는 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암진행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아미노산을 많이 포함한 식품은 유제품, 콩류, 발아현미 등이다. 발아현미에 들어있는 GABA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다.

지방산의 과잉섭취도 문제다. 동물성지방의 섭취량과 유방암, 대장암의 발생률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마가린, 쇼트닝, 그것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빵이나 과자 등에 들어있는 트랜스형의 지방산은 피속의 악질 콜레스테롤(HDL)을 불어나게 하고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리스크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화는 암의 단초가 되는 유전자 손상의 메커니즘과 매일처럼 생겨나는 암세포를 그 즉시 제거하는 면역세포의 자위(自衛)기능과 활성화 방법, 그리고 최신 암치료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쓰겠다. ㉠

www.kepco.co.kr



여름철 무정전 전력공급, KEPCO가 이뤄가겠습니다

장마, 태풍, 하계부하 등에 대비하여 한국전력은 열화상기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철저한 전력설비 점검으로 전력설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력설비피해 예방 요령

- 전력선 인근의 수목접촉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설비 인근의 작업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압아파트 구내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굴착의 경우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에 유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폭우 등으로 철탑주변 및 절개지 등의 지반유실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로키 氷河 - 雪山-호수에 취하다

김 선 기 (본회 회우 · 전 KBS 뉴욕지국장)



카벨 메도스 앞에선 필자.

캐나디안 로키를 꼭 10년 만에 다시 찾았다. 2001년 7월엔 친척들과 12인승 밴을 빌려 무려 6,600km 여정의 일부로 로키를 방문했었지만 이번 여름 여행에선 산행 중심으로 로키에 도전(?)했다.

이번 여행은 딸과 사위 일정을 고려해 7월29일에서 8월9일까지 11박12일의 짧은 여정이었다. 이 기간 중 8개 코스에 7일간 트레킹을 했다. 비행기 탑승과 장소 이동을 계산하면 거의 매일 트레킹을 즐긴 셈이다. 해발 기준으로 1,300여m에서 2,600m의 높이를 오르내렸다. 아마도 이런 산행을 택하게 된 것은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는 올레 길, 둘레 길 산행에다 빙하와 설산, 옥색 빛의 청정 호수 그리고 국내서는 맛 볼 수 없는 2,000m 이상 준봉의 매력에 내 뇌리에 어른거렸기 때문 일 것 같다.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

딸 내외와는 7월29일 오후 캘거리 공항에서 만났다. 여기서 차량으로 1시간 10여분 거리에 바로 캐나다인 로키의 중심 마을인 밴프가 있다. 캐나다인 로키는 미국의 로키로 이어져 미국쪽에 훨씬 더 높은 산이 많지만 캐나다쪽이 경관이 수려하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는 도착 다음 날인 7월30일 터널 마운틴 트레킹을 시작으로 몸을 풀었다. 7월31일은 세계 10대 비경의 하나인 레이크 루이스 주변의 6개 빙하 트레킹, 8월1일엔 모레인 레이크 주변의 라치 밸리 및 센티널 패스, 8월2일은 파커 리지, 8월4일 카벨 메도스, 8월5일은 재스퍼 주변 5개 호수 계곡과 설퍼 스카이라인 등 두 곳, 8월6일은 윌콕 패스를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이 각각 소요됐다.

트레킹은 곰 공격에 대비해야

밴프의 모레인 레이크는 해발 1,5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밴프에서 가깝고, 아름다운 호수다. 옛 20달러 짜리 캐나다 지폐에 도안 됐을 정도로 경치가 빼어나다. 산행은 모레인 레이크 주변에서 시작된다. 국립공원 트레킹의 시작점에는 산행 코스와 주의사항

그리고 현지점의 고도와 정상의 고도가 안내판에 적혀있다. 이곳 시발점이 1,887m이고 센티널 패스(고개)가 2,661m이니 774m의 높이를 올라 가야 한다. 보통 지리산 산행 들머리에서 천왕봉까지와 맞먹는 높이를 오르는 트레킹이다. 트레일이 안전하게 조성돼 있지만 야생동물의 공격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안내판에는 곰 출몰 지역이니 4인 이상 동행하라고 권유한다. 또 곰 습격에 대비한 가스 총을 휴대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다. 7월30일자 캘거리 헤럴드에는 곰 공격에 대비한 가스 총을 휴대하지 않고 트레일을 불법 이탈한 한국인 젊은이에게 400 달러 벌금이 부과됐다는 기사가 1면 톱으로 게재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지라 우리는 밴프에 도착하자마자 40 캐나다 달러나 하는 가스총을 구입해 휴대했다.

라치 밸리까지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경치가 전개돼 힘 안 들이고 올라간 느낌이었다. 주위의 눈 덮인 봉우리가 너무나 멋지다. 텐 픽스라는 이름의 준봉들이 형상 자체가 너무나 당당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준다. 곧 이어 펼쳐지는 미네스티마 호수는 그들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비치고 있다. 사방을 둘러 봐도 모두 절경이다. 우리는 이 호수에 손 담그며 잠시 휴식. 여기까지가 4.5km인데 1시간30분이 소요 됐다.

센티널 패스가 저 위로 보인다. 패스로 오르려면 눈 덮인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 두 중년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엉금엉금 눈길을 내려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경사가 급해서 등산로를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다.

호수에서 숨을 고르고 패스를 향해 출발했다. 우리는 눈 덮인 길에서 그들과 만났다. 등산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스틱도 없어 벌벌 기다시피 한다. 한쪽은 40~50도 경사의 낭떠러지이고 한쪽은 발 한쪽 너비의 눈길이다. 내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통과를 도왔다.

센티널 패스는 너덜지대와 같은 돌이 여기저기 나뒹그러져 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다. 몇분 후 서양인이 올라 왔다. 전문 카메라를 어깨에 매고 있었다. 그는 자진해서 우리들 사진을 멋지게 찍어 줬다. 센티널 패스에서 파라다이스 밸리가 저 밑으로 전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로 했

다. 하산을 옆두에 뒤야 했다. 이날 우리는 약 12km를 걸었다. 4시간 30분의 산행이었다.

빙원을 보며 트레킹하는 즐거움

8월6일 우리 일행은 콜럼비아 빙원을 왼쪽에 두고 산행을 시작했다. 윌콕 패스는 하이웨이93번을 사이에 두고 콜럼비아 빙원을 마주 보고있다. 원시림을 지나면서 비탈진 언덕이 이어 진다. 한국의 등산로와 비슷하다.

콜럼비아 빙원의 찬 바람이 몰아쳐와 샘 솟는 땀을 식힌다. 콜럼비아 빙원은 캐나다 로키 관광의 필수 코스인 곳. 그러나 얼음 깊이가 300m가 되는 이 빙원은 지구 온난화로 일년에 10m씩 짧아 지고 있다고 한다. 한시간 반쯤 오르니 콜럼비아 빙원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조망대에 다다랐다. 먼저 온 등산객이 빙하를 배경으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다.

우리는 얼마 안 가서 패스의 정점인 듯한 곳에 도착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마침 돌을 쌓아 바람막이로 둥그렇게 만든 등지인에 들어가 찬 바람을 피하고 샌드위치로 요기를 때웠다. 이제 탱글 폭포로 가야 한다. 수 미터 앞에 가는 캐나다인 부부를 따라 잡았다. 말을 나눠 보니 그들은 윌콕 피크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윌콕 피크는 2,884m나 되는 고봉이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다. 그들과 상의해 보니 오던 길로 내려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기는 아쉽기도 했다. 우리는 오던 길로 내려 오다가 마침 탱글로 가는 길을 잘 아는 일행과 만나 길을 바로 잡았다. 우리는 윌콕 패스의 정점인 2,375m를 거쳐 탱글 폭포까지 무난히 갈 수 있었다. 길을 헤매느라고 1시간을 낭비해 5시간 반에 걸쳐 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

캐나다 로키에는 2,500m 이상의 산은 수없이 많고 3,350m 이상 되는 산이 55개나 있다. 그러나 트레일에 표지판을 제대로 해 놓은 곳이 드물다. 윌콕과 탱글의 트레일 역시 표지판이 없어 문제였다. 기껏해야 돌무덤으로 길을 안내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4]

이 시대 참언론인을 찾습니다 2011 대한언론상 공모

시상일 추후 공고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1년도 대한언론상(제20회)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보도, 논평 및 언론 학술 연구분야 공적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10월 1일자 '대한언론'에 발표)

응모 요령

- 분야 : 1) 기획 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 학술 연구분야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 관련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 이력서 * 사진 2장 (명함판)
* 세부 공적내용(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 소속 단체장 추천서 (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1년 9월 20일 오후 5시
- 시상일 : 2011년 10월 중(추후 공지)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 732-4797~8, 02) 2001-7621

2011년 7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www.khnp.co.kr



원자력발전소 제염관을 대위하여-
사랑샘유치원 고은샘작품

“아빠! 원자력이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친환경 에너지래요!”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로,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안전에너지, 원자력

- ① 30년 운용노하우 - 1978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준공 이후, 30여 년간 무사고 운영
- ② 빈틈없는 완벽설계 - 다섯겹 방호벽으로 방사선 완벽 차단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대처
- ③ 유능한 전문인력 - 원자력 전문교육기관에서 장기교육 실시 / 시뮬레이션을 통한 상황훈련

초중등교사 대상 미디어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초·중등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전국의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열린 NIE 교사연수는 77명, 미디어교육 교사연수는 67명으로 총 144명이 연수를 신청했다.

코리아저널리즘리뷰 발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영문코리아저널리즘 리뷰 2011년 호를 발간했다. 코리아저널리즘리뷰(KJR)는 한국언론을 해외에 소개하는 영문저널로 국내 언론현황, 산업정책관련 정보등을 외국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언론 및 한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하는 NIE연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하는 토요일 중등 학부모 NIE연수를 실시했다. 연수프로그램주제는 신문 읽기 쓰기 및 NIE를 활용한 창의양성교육이었다.

서울신문 창간 107주년

서울신문(발행인 이동화)은 창간 107

주년 기념식을 7월 18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서울경제 창간 51주년

서울경제신문(발행인 이종환) 창간 51주년 기념식을 8월 1일 오전 본사 편집국에서 열었다.

연합뉴스, '증강현실' 서비스

연합뉴스(발행인 박정환)는 7월 18일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이용한 뉴스 서비스를 선보였다. 증강현실은 가상의 콘텐츠를 카메라화면에 덧붙여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 처럼 화면상에 보여주는 기법을 말한다.

KBS 첫 '장애인 앵커' 탄생

KBS는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앵커를 탄생시켰다. 52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앵커로 선발된 이창훈씨가 그 주인공이다.

KBS의 이번 장애인 앵커 선발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수많은 사

회 문화적 편견을 허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MBC연감발행

2011년 MBC연감이 CD-ROM으로 출반됐다. 이번 연감에는 본사와 계열사 자회사의 2010년 업무 내용이 수록됐다.

신문협회 NIE 교사 집합연수

전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NIE 원격직무연수 집합교육 과정을 8월 9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가졌다.

집합교육은 NIE 원격연수의 온라인 테두리를 벗어나 교사들이 직접 NIE 수업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저작권 보호 70년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법 개정

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와 혼란방지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오광건씨

권성 언론중재위원장은 1일 사무총장에 오광건 연구본부장을 임명했다.

오 사무총장은 1986년 언론중재위에 입사해 심리본부장, 운영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1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11년 국민포장을 수상한 바 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 초청 토론

한국방송기자클럽(회장 오건환·본회 회우)은 지난 8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국민방한중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반 총장은 이날 긴장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당국 등의 움직임을 긍정 평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당국이 대화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히고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으로, 인내심을 갖고 해야 한다”며 “정치적 성숙과 민주화,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폭넓은 주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언론사 社友會 소식

경향신문

친목 동호인 모임 활기

(1) 8월 1일자 사우회보 45호를 발행. 6월 27일 열린 금년도 정기총회 겸 단합대회 소식과 회원동정이 실렸다.

(2) 바둑모임 기우회(회장 구건서·본회 회우)는 매월 첫 째 주 목요일 10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빌딩 10층 경향사우회에서 바둑 대국을 갖고 친목을 다진다. 10여명이 동참하는 이 모임에는 이형균 사우회 회장으로 자주 참석해 격려하고 있다.

(3) OB산악회(회장 조명동)는 8월 6일(토) 북한산성 계곡에서 친목을 다졌다.

동아일보

회보 22호 발간, 산클럽 야유회

(1) 8월 25일자로 회보 22호를 발간. 12월 1일 개국 예정인 '채널 에이' 개국과 관련한 유재홍 사장의 준비현황소식과 정·관계 진출 동아일보 회우 명단을 실었다.

(2) 산클럽(회장 성낙오·대한언론 편집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서울대공원 현대미술관 옆에 위치한 자연캠프장에서 야유회를 갖고 친목을 다졌다. 18명의 동우가 참석한 이날 야유회는 삼림욕 장코스를 2시간 가까이 걸은 후 열렸다.

신아일보

고 장기봉 사주 3주기 추모식

언론인 고 장기봉(張基鳳) 전 신아일보사주 3주기 추모식이 8월 24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신아일보 본관에서 신아일보 사우회 주관으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종보 사우회 회장

(본회 회우·전 방송위원회 방송위원)을 비롯, 정운종 고문(대한언론인회 상임이사), 장기호 명예회장(본회 회우) 김익진 자문위원, 장영숙 부회장, 이동훈 사무처장(본회 회우), 임상학 회우 등 사우회 임원진이 다수 참석, 고인의 흉상 앞에서 묵념을 올리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중앙매스컴

전립선검사 편의 제공

(1) 사우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국성과학연구소 (소장 이윤수 박사)의 협조를 받아 희망하는 사우들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련 질환 상담과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사우회는 지난 7월 11일 한국성과학연구소와 업무협력 협약서를 교환했다.

(2) 중앙매스컴사우회 산악회(회장 진한영)는 창립12주년 행사로 8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일정으로 일본 규수로 테마여행을 떠났다. 중산회는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중국 황산을 등반한 기록도 있다.

(3) 2009년 이후 2년 만에 새주소록을 발간했다. 새주소록에는 1,992명의 사우명단과 현주소 전화번호가 수록돼 있다.

KBS

회원수첩 발간, 휴양시설 대명콘도 이용

(1) 퇴직사우의 콘도이용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그동안 KBS측과 논의한 결과 8월 하순부터 대명콘도까지 이용범위를 확대 했다.

(2) 2011년판 회원수첩 발간 작업을 시작,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배포할 예정이다. 연락처 02) 780-2946, 2947

회우들이 펴낸 新刊

이구열 회우 '나해석'

영상으로 꾸며낸 휴먼 다큐멘터리는 요즘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활자매체로 쓰여진 전기(傳記)류는 여전히 불모지 같다.

최근 나는 한 권의 책에 푹 빠졌다. 평소 존경하는 미술사의 원로 이구열님이 엮어낸 나해석의 전기를 탐독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책은 1971~1972년, 월간지 여성동아에 연재된 뒤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라는 부제를 달고 출간되어 독자의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고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희귀본이 되어 찾는 이들이 많았다. 이구열님이 37년 만에 '나해석'이란 제목으로 다시 복간하게 된 것이다. 나 역시 다시 읽고 싶은 책이었다. 나해석은 1896년 4월 18일, 경기도 수원지역 명문가정에서 태어나서 도교여자미술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로

"이 땅의 근대문화 개창기에 깃발하나를 꽂았던 해성"이었다. 그림뿐만 아니라 시, 소설, 수필 등 문학 분야에서도 화려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봉건적인 인습이 뿌리깊이 남아있던 당시에 조선여성의 각성과 자아 발견을 거침없이 주장한 선각자이기도 했다.

일본의 교토제국대학을 나와 일본정부의 외교관과 고관으로 활약하던 김우영의 끈질긴 청혼 끝에 결혼하여 세상 부럽지 않은 스타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호사다마로 프랑스 파리의 외유에서 우연히 만난 천도교 지도자인 최린과의 스캔들로 김우영으로부터 파



혼당하고, 친정집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아이들 과도 격리되는 등 그녀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영광과 파멸의 극과 극의 가혹한 운명에 번통당해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급기야는 사고무친이 되어 전전하다 서울의 한 병원 무연고 병실에서 이롭도 밝히지 않은 채 고혼이 되었다. 1948년 12월 10일, 그녀의 나이 53세의 해였다.

이 책은 나해석의 출생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다재(多才)로운 활동시기, 선각적인 그녀의 면모 등을 서술하고, 최린과의 스캔들로 파혼을 맞은 '파탄(1929~1934)'의 과정, 마지막으로 고독과 방황 끝에 몸과 마음이 망가져 요양원을 전전하다 고혼(孤魂)으로 세상을 떠나는 결말로 끝난다. 저자는 나해석이 직접 쓴 일기, 고백, 여행기, 수상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나해석의 나상(裸像)과 진실을 검증하듯 추적하였다. 많은 주석과 해설은 신뢰감을 갖게 한다. 마치 학술서적마냥 면밀하게 서술하였다. 진실을 추구하는 다큐멘터리의 정도(正道)에 근접하려고 애를 썼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나해석은 죽기 직전에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사랑하던 그림도,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선각운동도 애ത한 어머니의 모정에 대신할만한 것은 없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라스트신이였다. 이 책을 쓴 저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4]

호 현 찬 (본회회우·영화평론가)

隨想

모스크와 聖堂

‘성당을 헐어 모스크를 짓고, 모스크를 성당으로 개조하고, 그 옆에 또 모스크를 증축하고를 되풀이 하다 보니 지치고 어이없어 결국은 함께 살기로 했구먼....’

스페인 고르도바에 있는 이슬람교의 모스크, 메스키타 안에 남아있는 기독교 교회의

유적 앞에 생각에 잠긴채 서 있다. “그 옛날 이곳엔 가톨릭교회 성(聖) 비센테교회가 있었다. 어느날 이슬람 세력이 북 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로 침입, 이 교회를 빼앗아 모스크로 사용했다. 8세기가 되자 교회를 매입, 본격적인 모스크 건설을 시작해 10세기 말에는 2만 5천명까지 수용할수 있는 규모로 증축했다. 13세기에는 기독교 세력이 이곳을 재정복, 거대한 모스크는 성당으로 개조되었고, 최종적으로 16세기에 스페인 왕 카를로스1세가 모스크 한복판에 고딕양식과 르네상스양식을 절충한 성(聖)마리아대성당을 지었다.” 수행안내원의 숨 가쁜 설명이 계속 되었다.

모스크의 눈부신 광택을 시기한 대성당, 교회의 향기에 취한 웅장한 모스크 세상에 둘도 없는 불가사의한 건물군이 위용을 겨루며 이곳에 할거하게 된 것이다.

1998년 9월, 니혼료코(日本旅行)가 기획한 ‘정열의 스페인-안다르시아 여행 8일간’에 참가, 5일째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이슬람이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땅인 이곳 이베리아 반도에 왕국을 세웠으나 힘을 키운 기독교 국가의 침범으로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8세기부터 거의 8백년간을 두 세력이 죽거나 살거니를 거듭했다.

그것은 모스크를 짓고 증축하고, 빼앗겨 성당으로 변하고 또 되찾고한 두 종교의 성지 쟁탈의 역사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적대관계인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뒤섞인 세상이 이곳에 생겨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코란과 성서가 어지럽게 혼합된 성지를 다녀온지 3년째 되는 2001년 9월 11일밤, 10시가 넘었는데 미국 워싱턴에 살고 있는 딸 아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뉴욕의 쌍둥이 건물인 세계 무역센터에 여객기가 충돌했다는 것이다. 9·11테러의 제1보는 그런 항공기사고와 같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TV와 인터넷을 총 동원하여 사건의 진상을 추적했다. 웬지 자꾸만, 3



김귀제

- 본회 원로 회우
- 전 경향신문 정치부장

년 전 스페인 고르도바에 새겨 놓았던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긴 세월에 걸친 압력의 토막 토막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무슬림과 기독교의 다툼소리와 절규가 환각으로 떠오르고,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 신부의 컷전을 스쳐가는 이슬람교 예배를 알리는 아잔(adhan)의

잠긴 목소리 등... 불길한 예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물 거렸다.

그 때 일본은 태풍 15호가 관동지방을, 16호가 오키나와를 강타, 모든 마스크가 태풍에 휘말려 기진맥진해 있었으나 테러발생이란 비상사태로 그들의 신경은 뉴욕 쌍둥이 건물의 붕괴 현장으로 모아졌다. 두 건물에 돌입하는 피랍 여객기, 불타면서 내려앉는 쌍둥이 건물. 말이 안되는 처참한 아수라장이 선명하게 되풀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윽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명백한 테러’라는 발언, 펜타곤(美國防省)건물에 제3기(機)격돌, 처참한 테러는 단시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미국이 공격 받은 것은 진주만(眞珠灣) 공격 이래 두번째’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슬람 원리(原理)주의 세력에 의한 미국 테러공격의 가능성은 훨씬 전부터 심심찮게 거론 되어 왔었다. 그 이유로 미국의 대(對)아랍정책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등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설마했던 일이 미국 심장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UN은 ‘국제사회는 결속하여 테러와 싸워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그러나 그 테러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하드(jihad)라고도 하는 자폭테러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코란에는 내외(内外) 두 개의 지하드가 있다고 한다. 안(內)으로의 지하드는 ‘신(神)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마음속의 악(惡)과 싸우는 것’이고 밖으로의 지하드는 ‘이슬람세계를 확대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와의 싸움’이라고 교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때는 전후(前後)라든가 내외(内外·안팎)라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하게 된다. 무슬림이 지하드를 수행할때에도 내외의 순서에 따라 먼저 안으로의 지하드인 ‘신을 위해 괴로워 하고 자기 의욕을 끊는 노력에 전념 한다’를 충실히 한다면 다음에 할 밖(外)으로의 지하드인 이교도(異教徒)와의 대결 의지는 한층 움츠러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신임회우 환영합니다



김진길(金鎭杰)

1936년 8월 9일생
경기용인시 처인구 유림명일 스카이빌 빌딩 401호
전화 017-340-6778
한국일보 경제부기자(61), 서울경제 취재부기자(62-77) 차장(77-80), 한국일보 체육부장(80-82) 조사부장(82), 편집위원(88-91)



손진옥(孫珍玉)

1952년 9월 22일생
서울 노원구 하계1동 한신청구아파트 2동 608호
전화 979-3516, 010-2388-3516
약업신문기자(75-77), 동양통신기자(77-80), 연합통신기자(80-83), 연합뉴스기자(93-99),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99-2011 현재)



최연석(崔然石)

1941년 3월 10일생
서울 은평구 응암동 97-3 서안아파트 202호
전화 011-470-4908
강원일보 기자(61-62), 신아일보 문화부(미술)기자(67-79)
* 시사만평 삽화 등으로 언론계 종사



탁성만(卓成萬)

1939년 11월 16일생
서울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102-1125
전화 809-3232 010-2242-7756
동화통신 동화그라프기자(68) 편집장(71), 한국일보 주간 한국기자(79), 차장(88), 서울경제신문 정경부차장(88), 특집레저부차장(91)

토요건강포럼 전립선 건강 특강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매월 공동으로 열고있는 ‘토요건강포럼’이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이운수·조성완 비뇨기과 홀에서 열린다. 이번 9월 강의는 ‘백의 전립선은 안녕하십니까?’로 자칫 방심하기 쉬운 전립선 건강에 대해 전립선 전문의이며 본 토요건강포럼 공동 대표인 이운수, 조성완 박사가 맡는다.

전립선 질환은 현재 해가 갈수록 많아져 우리나라 성인병중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히고있으며 또한 전립선암의 발병률도 점차 높아지고있어 이번 기회에 전

립선이 노년기에는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새로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것이다.

한편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의 전립선 검사 특별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이운수 박사는 대한언론인회 회원들에게는 ‘효’차원에서 특별진료를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다 늙으면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라며 또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냥 무작정 참는 경우가 많은데 불편을 참지 말고 진료를 받으실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4]

2011가을 문화탐방 안내 9월23일 강화도 문화유적지 탐방

아래와 같이 가을철 문화탐방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신청은 9월 15일(목요일) 하루만 받습니다. 선착순 80명

- 일시 : 2011년 9월 23일 오전 8시 프레스센터 정문출발
- 탐방 코스 : 서울 출발 - 강화대교 - 갑곶돈대 - 고려궁지 - 평화전망대 - 고인돌- 역사박물관 - 중식 - 고려궁지 - 전등사 (또는 광성보)-초지진 - 서울 도착(오후 5시경)

이승만박사 동상제막 본회 洪희장 등 참석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창달)은 8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동상제막식을 가졌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아시안민족반공연맹(APACL)창립을 주도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008년부터 건국 60주년 특별사업으로 이승만 박사 동상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제막식에는 본회 홍원기 회장을 비롯, 제재형고문 한영섭 신경식 회우가 참석했다. [4]



남산에 세워진 이승만 박사 동상.

회우동경

(가나다순)

저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영택(전 동아일보 기획위원)회우=저서 '5월 18일 광주-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역사공간·2010)이 대한민국학술원에 의해 '2011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6·25 유공자 처우개선 건의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 본회 발전기획위원장=8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방문, 6·25 참전유공자 예우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건의.

공설묘지내 박물관 건립반대



박명근 본회 복지기금 관리위원장=최근 속초시 공정 사회시민연대 회장으로 추대돼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내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반대 투쟁에 앞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조찬강연



임덕규(영문 월간 디프 로머시 회장) 회우=8월 11일 오전 서울 남대문 소재 대한상의 회관에서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임 축하 조찬강연회를 주선.

경제풍월 창간 12주년 기념식



배병휴(경제풍월 발행인)회우=8월 31일 오후 5시 30분 서울 '한국의 집'에서 경제풍월 창간 12주년 기념식을 갖고 삼양그룹 김상하회장과 한국야구르트 윤병덕회장에게 '한국기업가 정신 대상'을 시상.

시집 '주머니 속의 여자' 출간



유자효(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회우=최근 열 두 번째 시집 '주머니 속의 여자' (시학·2010)을 출간.

업무협약 체결 필리핀여행



윤종보(신아일보사우회 회장) 회우=업무협약 체결 7월 25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를 둘러보고 7월 29일 귀국.

東友會報 초대석 인터뷰



이종석(장지연기념회 회장)회우=지난 8월 25일 발행된 동아일보 사우회보 '동우초대석'에서 '위암 장지연선생 서훈취소 부당성' 관련 인터뷰.

사우회 발전 유공 감사패 받아



장기호(전 신아일보 사 회부장)회우=최근 신아일보 사우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우회 발전과 회우들 간의 우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광복절 경축 청와대 오찬 참석



조성국(코리아헤럴드 편집위원)원로회우=8월 15일 '광복회 애국지사' 입장으로 광복절 66주년 경축 청와대 오찬에 참석.

공병사관 43기 기 회장에 피선



황대연(전 매일신문 편집위원)회우=지난 8월 22일 입관 58주년 기념 총회에서 육군공병학교 43기 사관후보생 기 회장에 선출되었다.

김병석 원로회우 별세



김병석 원로회우가 8월 5일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8월 7일(일) 오전 6시 50분 경기도 안성에 있는 성요셉병원 성혜원 영결식장에서 한국잡지협회장으로 치러졌다.

고 김병석 회우는 1921년 12월 1일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하여 1941년 일본 동경전수대 법과를 졸업하고 언론계에 진출, 1950년 국회통신사 정경부장, 1957년 산업경제신문 경제부장, 1964년 일간경제신문 경제부장

을 지냈다. 이후 1966년 3월부터 월간 은행계(현재 월간 금융계)를 창간 발행해 왔으며, 1969년부터 협회 감사, 이사, 부회장(10, 11대), 회장(17, 24대)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잡지계 발전과 잡지를 통한 한국 금융산업의 연구 및 기초자료 활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 잡지언론상 유공부문, 1983년 국무총리표창, 1985년 문화포장, 1988년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회우 저술문고 보내주신 분

(가나다순)

김용구 회우= '김용구 수상록 인간을 위하여' (1989년) '언론사상연구' (1995년)

김종현 회우= '외길 43년' (2007년)

김진규 회우= '기자의 세계' (1982년)

김한길 회우= '취재외길 오십년' (2007년)

남재희 회우= '양파와 연꽃' (1992년)

민규호 회우= '사회부장이 바라본 세상' (2002년)

박문송 회우= '가슴에 묻어둔 내고향산하' (1996년)

박현태 회우= '하이에나 저널리즘' (1996년)

성재삼 회우= '혼자살려거든 태어나지 말아라' (2008년)

송호빈 회우= '경영품질혁명' (역저, 1999년)

유지호 회우= '예멘의 남북통일' (1997년)

윤임술 회우= '신문과 언론인의식' (1981년)

이구열 회우= '근대한국미술사의 연구' (1992년) 그녀 불꽃같은 생애를 그리다 '나혜석' (2011년)

이시현 회우= '기사로 말한 기자' (2009년)

이종전 회우= '법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 (1997년)

이준기 회우= '시대의 그림자에 아픔을 묻고' (2000년)

전민조 회우= '사진이야기' (2007년) '기자가 바라본 기자' (2008년)

정일화 회우= '아는것과 다른 미국' (1997년)

정재도 회우= '국어사전 바로잡기' (1997년)

조동표·이태영 회우= '서울 챔피언' (2010년)

조창화 명예회장= '지방체육활성화와 지방신문의 역할' (2000년) '21세기 방송론' (1998년)

천상기 회우= '사건과 신문 편집 사에라' (1999년)

최종수 회우= '전남일보 창간 비망록' (2006년)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1984년) '커뮤니케이션 원론' (1986년)

주소·전화번호 변경

구월환 회우 = 010-9425-3466

김길홍 회우 = 010-3522-0188

김세경 회우 =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삼선푸르지오A 120-902 (우 136-721)

김 현 회우 = 강서구 등촌동 717 SK그레이스 힐 802호 (우 157-855)

송호창 회우 = 010-3739-2999

이대영 회우 = 강동구 고덕동 499 고덕아이파크 101-204 (우 134-805)

이종덕 회우 = 중구 신당3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4동 901호

정진석 명예회우 = 010-2378-7818

연회비 납부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2010년 고수웅

2011년 고수웅 김한구 장종덕 정재도 최희조

회우 경조사

▶ 결혼 ◀

박정진 본보 편집위원 = 9월 30일 오후 7시 차남 결혼 강남 목화웨딩문화원 2층 르네상스홀

▶ 부음 ◀

장기호 회우= 7월 29일 빙모상, 강남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8월 1일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p.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네 번째 이야기

처음엔 당신에게
어떤 말로 용기를 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 멋진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람이 미래다 **DOOSAN**



5년연속
세계판매 1위
★★★★★

삼성전자 SAMSUNG



끊임없이 새롭게 채워지는
3D콘텐츠와 스마트어플



당신의 스마트TV니까

대화면 무료영상통화 | 실시간 인터넷검색과 스마트팁 | 끊임없이 업데이트 되는 3D콘텐츠와 스마트어플 스마트TV의 [하늘과 땅차이] Samsung SMART TV

※5년연속 세계판매 1위 : 2006년 ~ 2010년 디스플레이서치 세계판매 기준